朝鮮日報
夕刊
三十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杭線松江空襲
嘉定南翔陣地爆擊
軍用自動車十數輛爆破
大石機無事基地歸還

【上海三十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 午前零時發表＝千田少佐가引率한 海軍航空隊는 二十九日 午前十一時四十分 上海로부터杭州에 至하는 滬杭甬鐵路松江을 空襲하야 敵陣地及軍用自動車十數輛을 爆破하고 또 他部隊는 嘉興、南翔、三神宅、紀王廟、楊家村方面의 敵陣地를爆擊하엿다

【上海二十九日發同盟】陸軍航空隊의○○機는 今日早朝부터 夕刻에 이르기까지 地上部隊의戰鬪에 協力 南翔附近의 敵主力要陣地에 巨彈을퍼부어 그威力을 遺憾업시發揮하야 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上海三十日發同盟】海軍航空隊는 二十九日松江 嘉縣 南翔等에 巨彈을 퍼부엇는데 이空襲에參加한 大石航空兵曹長을 機長으로한○○機는 南翔上空에서 敵高射砲彈을"까솔린탕크"에마저 即時 火焰에빠지어 危險하야 墜落되리라고 생각하든 瞬間 大石機長以下 乘員은 沈着하게도 備置한消火器로써 空中에서 이를꺼버리고 그대로 非常한難航을 繼續하야 ○○基地로 全員無事히 歸還하엿다 歸還後調查하여보니 機의重要部分은 無慘하게 破壞되여잇서 어半壞機를 잘操縱한 大石機長以下의神技에는 ○○基地一同이 혀를내둘럿다

英兵不法措置에
海軍當局抗議提出

【上海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午後에 發生한英國陸軍의 帝國海軍艦艇에對한 不法措置問題에關하야 我海軍當局은 二十九日 英國側에 對하야 抗議를提出하엿다

英國艦隊長官에스스로軍艦出雲에來艦하야射擊을 中止하기바란다는旨를 抗議하엿는데我方의調查에依하면 我陸戰隊는 同日夕刻以後는 全然射擊을 行하지안코 또 陸軍側의 調查한 結果는 各部隊와 모도同日日沒後는砲擊을 行하지안흔것이判明되엿다 또 同日午後九時頃曹家渡路에도 砲彈이 落下한旨를通知하여왓스나 同方面은 陸軍陣地로부터 射程밖에엇다

英兵死傷은 我砲彈이아니다
海軍副官談發表

【東京電話同盟】海軍省副官談＝三十日午前十一時發表＝現地로부터의報告에依하면 昨二十九日午後一時半(中央標準時)頃日本軍의砲彈이 제스필드公園南方地區에 落下하야 英國兵一名이 死亡하엿다고 英國軍艦으로부터 我艦隊司令部에 通知하여왓고 또그다음 午後九時頃右地區의 南方에 砲彈이 落下하야 英國兵二名이 死亡하고 數名이 負傷하엿다고

日獨交驩放送
來廿五日로決定

【東京電話同盟】日本近衛首相과 獨逸히틀러總統이 바다를건너握手하는 交驩放送은 日獨防共協定一周年을 機會로마침내實現되게되엿다 이放送은 日獨親善을 爲한 서장意義깁흔 防共協定記念事業으로 爾來 獨逸과 折衝交涉中이드니 마침내 其體化하야 日字는 十一月二十五日로決定되여 當局者는 目下準備를急히하고잇다

九國會議招請에
獨回答文內容

【伯林廿九日發同盟】獨逸政府는 二十九日 白耳義政府에 對하야 九個國條約會議參加를 拒否한다는旨를 正式으로 回答하엿다고 그런데回答文內容은 左와如하다 獨逸政府는 브랏셀會議參加招請에關한 九月二十八日附 白耳義政府의通牒을 接受하엿다 右通牒은 平和的手段에 依하야極東에잇서 遺憾된紛爭을될수잇는대로 急速히 終熄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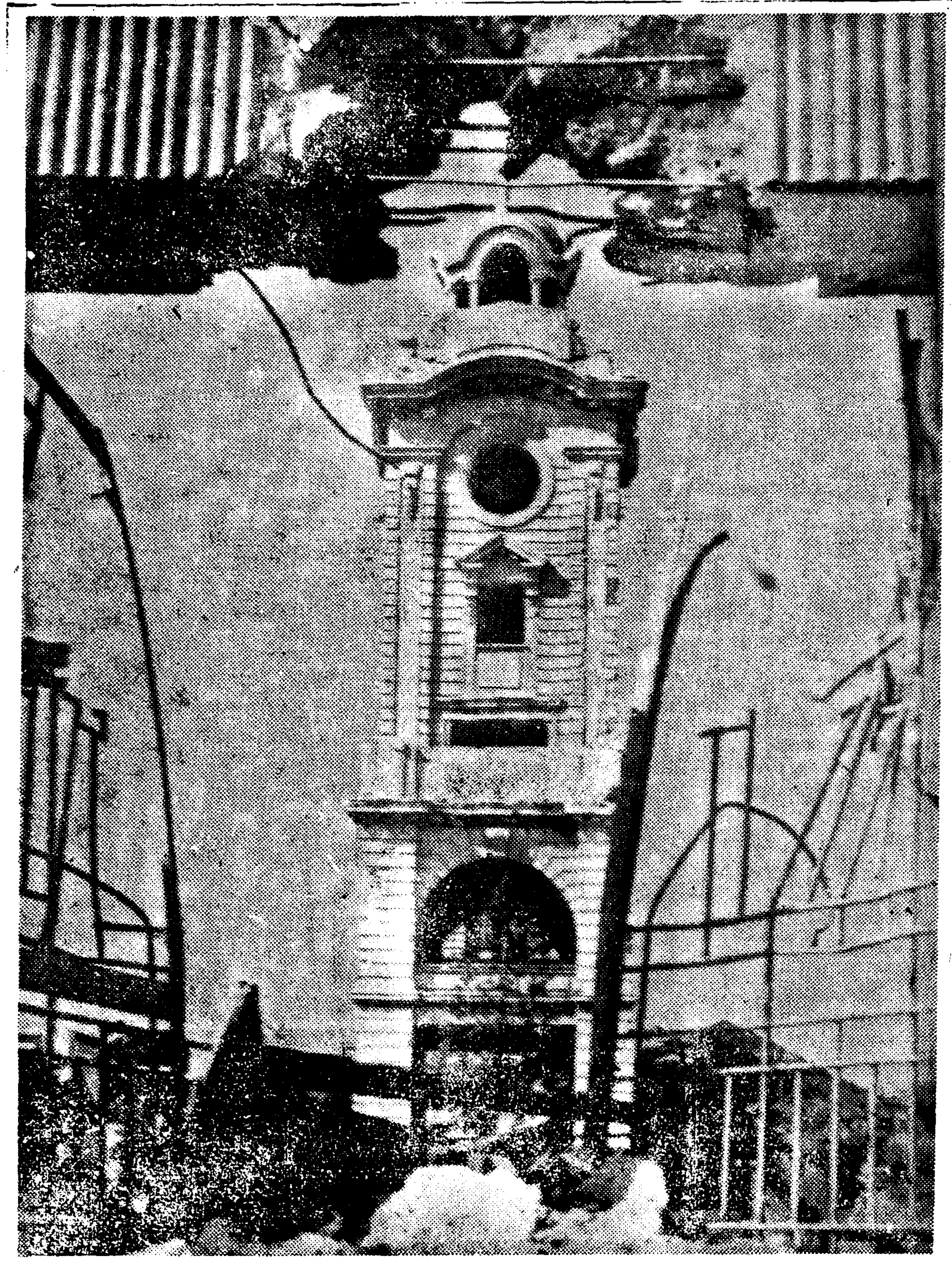
明治節奉祝要綱
總監各官署에通牒

來十一月三日 明治節의奉祝에 關하야 今般內閣에서는 本年은 國民精神總動員實施中임으로 그趣旨를 强調하기爲하여 左記의要綱에依하야 널리實施키로 決定되엿슴에 總督府에서도 그趣旨를 明治節奉祝의뜻을 더욱 깁게하고저 三十日政務總監으로부터 道內와 各所屬官署에 通牒을發하엿다

明治節奉祝實行要綱

一、趣旨
明治節을 奉祝하오며 明治天皇의 聖德、御鴻業을 우러러特히時局에鑑하야 日淸、日露의戰役을 回顧하야 御稜威를 欽仰하고 아울러 先人奉公의 苦心을생각하옵고 國을擧國一致、擧國民으로서의 覺悟를 다하

二、實行方法
1、官廳、學校等에 잇서서는 從來의擧式의例에依하야 奉祝又는 祝賀式을行할것 從來式을擧行치안흔곳은 右에準하여 될수잇는대로 式을擧行할것
2、當日은 午前九時를期하여 「國民奉祝의時間」을設定하고 式에參列치안는者는 各其의場所에서 全國一齊히 宮城遙拜를行할것 此를爲하여 同時刻에는 라디오、汽笛、싸이렌、鐘等에依하야 周知의方法을講究할것
3、當日은 適宜의方法에依하여 明朗實勢한氣分으로써 明治節을奉祝하여 前項趣旨의達成을圖하도록 힘쓸것



上海戰線……我軍의爆擊으로破壞된同濟大學

石井菊次郞使節
廿九日東京出發

【東京電話同盟】國民使節로美國에가는 石井菊次郞子는 令息[illegible]及[illegible]駐英大使館三等書記官을同伴하고二十九日午前九時東京驛出發、三十日午前神戶出帆의照國丸으로渡美할豫定이다

時事解說
長期抗戰

一

支那事變은 二個月餘에亘하야 上海附近各戰線에 頑强한 抵抗을 繼續하고 [illegible]하여 왓스나 [illegible]은 天候의不良 [illegible] 마침내 大場鎭 江灣 閘北等 堅陣을克服하고 一轉 嘉定 南翔 蘇州河를 進擊을 開始하게되엿다。北支戰線과 아울러 支那는 各戰線에서 大敗되고 [illegible]

二

「長期抗戰」은 文字에나타난 [illegible] 長期抵抗에 依하야 [illegible] 失敗케하는 戰略이다。[illegible] 「軍備가相等한 [illegible]相互間의 戰爭이라고하면 [illegible]陣地에서 勝敗가決定되는것이나支那에잇

三

[illegible] 國土의 廣大와 [illegible] 長期抗戰의 必須要件이 될것이다。그러나 高度로 [illegible] 의存在는 廣大한國土와 遼距 [illegible] 이다。

英國上海警備將校
軍艦의特權을無視
英兵의連續的不法行爲는
支那抗日意識을助長

【東京電話同盟】二十九日夜제스필드公園南方地區에서이러난英國兵射擊事件에關하야 海軍省은三十日別項과가티 副官談을 發表하엿는데 現地로부터온 報告에依하면 同事件은 窮地에陷入한支那軍이 모든手段을다하야 第三國의干涉誘致를 企圖한 惡辣한行爲라는疑心이 極히 濃厚하다 그러나 英國側이 無條件으로日本軍의砲彈이라고 斷定하야 抗議하여온 態度는 千萬不可解이다 또同日夕刻米國側의 希望에應하야 閘北地區의防火作業에協力하기爲하야 蘇州河를遡航한軍艦出雲의 內火艇에對하야 航行의自由를無視하고 遡航을 妨害할뿐아니라 軍艦旗를揭揚한 內火艇에 對하여도 蔑視的態度를 示한것은 軍艦의重大한 特權을 無視한것이라고 하지안흐면 아니된다 我當局은 이에對하야國際法의 智識이업는英國下級將校의行爲라하고 그리重大視 하지는안으나 英國守備兵의 거듭하는不法行爲에對하야 當局은 될수잇는대로 冷靜히하고 잇스나 如斯한 英國側의 態度는 支那의抗日을 益益助長하는것이라하야 甚히憤慨를 感하고잇다

支那代表何傑才
再次聯盟에提訴

【壽府廿九日發同盟】聯盟支那常任代表何傑才는 廿九日 아브놀聯盟事務總長에게 새로운抗議通牒을提出하엿다 右는 十月十三日以後에잇서 日本軍의 支那諸都市非戰鬪員及 漁船襲擊事實을 抗議하고 通牒內容을 理事會及總會의構成 各國에 傳達하기를要求한것이다

[illegible] 明白히하엿는데 獨逸政府는 어努力을 [illegible]할 誠心으로 感謝한다 但獨逸政府는 招請狀內容을 愼重히檢討한結果 브랏셀會議가九個國條約第七條에基하야 召集되고 同條約의 適用問題가 討議의 目的으로될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하엿다 따라서 九個國條約調印國이아닌 獨逸政府는 參加할수업다고 思惟한다 但獨逸政府는 日支紛爭의 平和的解決에 不可缺한 諒解的條件이 保障되는境遇 如斯한 解決을 目的으로하는 公式會議에는參加할 用意가잇다는旨를 言明하고저하는바이다

司計課長後任
奧村稅務課長

林財務局長의 殖銀頭取就任에伴한 後任은 水田司計課長이되기를 二十九日의閣議에서 正式決定을보앗는데 司計課長後任은 奧村稅務課長으로 內定하고잇는模樣이다

松岡滿鐵總裁
近近辭任?

【東京電話同盟】松岡滿鐵總裁는 近近衛內閣의 參議에 就任하게된 그進退는 매우注目되고잇섯는데 今回滿鐵은 그傍系事業인 工業經營그他를 日產에委讓하야 그本來의 使命인 鐵道事業에 專念하도록 經營上一大轉換을 期하게된고로 이機會에勇退하야 總裁를辭任하게된 模樣인데 느저도 今年內에 實現될것이라고 보게되엿다 또松岡總裁辭任의境遇에는 後任總裁는 目下大藏公望男이 最有力하며 東拓總裁安川雄之助氏、東北振興總裁入田嘉明氏도候補로推薦되고잇다

米平和團體
現政策非難

【華盛頓二十八日發同盟】日支紛爭에對한 米國의 嚴正中立을主張하야 果敢한 運動을 繼續하고잇는 米國平和六團體는 二十八日 政府當局의 政策을非難하야左와如히 聲明하엿다

日支紛爭에對한 米國의 政策은 全然米國海軍의 掌中에잡히여 海軍은 只今戰爭이나平和나의 決定權을 잡게되엿다 亞細亞艦隊 司令長官 야넬提督은 容喙하여오는 飛行機에對하야 容恕말고 砲擊을加하라고 命令을 發하엿다고하나 그가튼 命令어야말로 米國政府의 所謂二十四時間 主義가 中立法을 無視하고 米國을戰爭에 導入케하고잇슴을 明白히表示하는것이다

九個國會議에
伊不參加理由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 九個國條約國會議不參加理由로 傳하는바는左와如하다
一、蘇聯이 九個國會議에 參加하는것은 會議를破壞하는것이다
一、伊太利政府는 蘇聯代表와同

獨蘇兩代表對立으로
不干涉會議遂停頓
蘇交戰團體權問題審議及英佛案反對
獨逸代表憤然히應酬

【倫敦二十九日發同盟】不干涉分科委員會는 前日에 續하야 二十九日午後五時開催 西班牙義勇軍撤收問題와 交戰團體權承認問題에對하야 審議를 繼續하엿다 席上蘇聯代表마이스키大使는 交戰團體權問題의 審議를 事實上拒否하고 七月의 英國案及去十六日의 佛國案에對하야 모두反對를表明하엿기때문에 會議는바야흐로 難關에 陷入하엿다 右蘇聯代表의主張에對하야 獨逸代表리벤트롭大使는 憤然히 應酬하야 蘇聯의態度는 不干涉政策만이아니라 歐洲에威脅을 與하는것이라고 詰難하야 會議는 討議三時間 何等結果를보지못하고 入時散會하엿는데 分科委員會는 十一月二日開會할豫定이다 獨、蘇兩代表의 對立에依하야 前途는 多難하다고觀測된다

蘇州河岸猛爆

【上海三十日發同盟】敵을蘇州河南岸으로追擊하야 河를挾하고敵과對峙中인 陸戰、砲兵以下諸部隊는 今朝來正面의敵에對하야 攻擊을開始하엿다 空의荒鷲도部隊는 地上猛擊과步調를 合하야 北新涇鎭附近、外國의 重要據點을爆擊하는中이다

山西省各要地爆擊

【天津三十日發同盟】地上部隊의 猛擊에 呼應하야 我陸軍飛行隊는 山西省心臟部諸要地를 爆擊하야 多大한 戰果를어덧다 即
一、佐佐部隊는 廿九日 悠悠히太原上空에 旋回하야 敵飛行場을 爆擊하야 二機를 破壞하고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一、吉岡部隊는 卅日 午前六時四十五分 太原鎭上空에서 敵三機와 遭遇하야 壯烈한 空中戰을 展開하야 山下少尉機는 敵編隊를 目標로 猛擊을 加하야 巧妙하게 어를 擊墜하엿다

反蔣團體解散
廣西反蔣要人

【上海三十日發同盟】今次事變에際하야 蔣介石傘下에馳參한 李濟琛、陳銘樞、蔣廷鍇、陳友仁等 一九三三年福建事件을起한 反蔣軍團等은 今回中華民族革命同盟을 正式으로 解散한다는宣言을本日 支那紙에 宣言을 發表하엿다

嘉定南翔線主陣地
廣福에攻擊開始

【上海三十日發同盟】廣福方面의 敵은 南北에亘하야 數線의陣地를 構築하고 頑强한 抵抗을繼續하고잇는데 前日來 田代、添田、兩角、食林의諸部隊는 이를攻略하기爲하야 이미 顧家橋新陸宅의 敵陣을奪取하고 揚涇크리크의敵前渡河에 成功하야 今朝來 飛行機와砲兵의 援護下에 이미 廣福의 主陣地를南하야 攻擊을 開始하엿다 그리하야 [illegible]第一線陣地의 前方은 必死的防戰에 努力하고잇다

穀協代表者會議

朝鮮穀物協會의 朝鮮米運賣[illegible]에關한 各協會代表者會議는三十日午前十時朝鮮호텔에서 開催하고
一、配給問題에對한 態度決定件
二、米運賣協會開催日程決定件
을 附議하얏는데 大體協議會는 七、八日頃으로되리라한다

蘇代表參加時는
伊政府參加拒否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白耳義政府의 招請에應하야 兩者九個國條約國會議에 參加한다는旨를 回答하엿스나 萬若蘇聯이 參加한다면 伊太利政府는 獨逸에 擬倣하야 參加를拒否하는것이 어니라고傳한다

北支棉花中心
東拓經營方針

二週間에亘하야 北支南鮮方面을視察中이든 大志摩東拓理事는 滿洲經由二十九日午後二時二十八分着入京하엿는데 如左히말하엿다
天津은非常히活氣를帶하고잇고 地方富豪가 만히들어와서 平穩하고 明朗한氣分에 싸이어잇다 天津紡績은 事變에依한 影響이 意外로적고 二、三日休業하엿슬뿐으로 目下七十五％가 操業하고잇다 天津의紡績은 計畫中의것을 合하면 百萬錘에達하는데 今日實際움직이고잇는것은 二十五萬錘이다 其中東拓關係의 天津紡績、裕大紡績이 七萬錘를 占하고잇다 此等은모다 北支棉을 原料로하고잇는데 棉質은자못優秀한것으로 有望하다 本年은水害로 作況이不良하고 三百萬擔의 收穫豫想이 百七十萬擔豫想을 減少하엿는데 東拓이今後北支에서 할일은 棉作의集約的經營等은非常히有望하다고생각한다 長城炭鑛은 目下鐵道의 修理新抗道의開鑿等에 着手하고잇는데 大體年三四十萬噸의 出炭豫定이다 確定埋藏量은 無煙炭七千萬噸이라하나 燃料用의販路消費量 目標로두고잇다 安全農村은目下 冀東의 茶亭을第一候補地로하고 水田經營을調查中이다 滿洲中東海林의 伐材事業은本年에 이미四千餘萬石을 伐出하엿는데 主로 軍用材枕木 펄프材로서 伐材할方針이오 傳하는 것가티 펄프事業의 計畫等은全然업다 在石推定八千萬石이라는 森林임으로 有望한것인데 今回拉賓線에 積出키爲하야서는 牡丹江附近의 東頭河子沿岸羊鈸溝로부터 四十키로의 輕便鐵道를 敷設할 免許를得하고 本年中에 完成키로되엿다

八面鋒

◇牙山郡內 三個金組의 組合員貸付總額이 百六十萬圓。
◇組合員八千名으로 나누면 一人압에 二百圓式。
◇預金은 六十萬圓이라니 一人압에 七十五圓式。
◇負債에서 預金을除하여보면 一百二十五圓이 남는셈。
◇어쨋든 牙山一部의現狀이라할지라도 걱정。
◇農村振興을獎勵하야 當局이 여러가지로 애를쓰는데 이때에 家庭經濟를 주릴데로주리는셈。

郵便官署
手形交換所
參加規定公布

郵便官署의 手形交換所參加에就하야서는 從來法令이 업섯스나 卅日府令第百七十號로 郵便官署手形交換所 參加規則이 發表되어 十一月一日부터 施行케 되엿다 郵便官署가 手形交換所組合銀行間에 交換計算할證券의種類는 內國郵便爲替證書 外國郵便爲替證書 振替貯金拂出證書 同局待拂出證書及 郵便官署가 支拂을受할 各種證券이라한다

支那今後五個年間
對日抗戰에堪當
蔣AP特派員에豪語

【紐育廿九日發同盟】蔣介石은二十八日로이털通信을 通하야 英國國民의援助를 求하엿는데二十九日에다시 A·P通信社南京特派員에 對하야 支那는 今後五個年의 戰爭에 堪當할수잇다고 豪語하는一方 英米의 對日强硬態度를 懇請하야左와如히 말하엿다

支那는 五個年間의 對日戰에 堪當할수잇는 準備가 完備되엿다 黃河를挾한 大會戰에는 반드시 支那의 眞正한 戰鬪力을世界에 顯示할것이다 我等은 이會戰에依하야 支那의 只今까지의悲慘이 歡喜로變할것을 希望하고잇다 支那는英米兩國이 조곰더强硬한態度를取할것을期待하고잇는데 무슨緣故로世界의諸强國이 日本을恐怖하지안흐면아니될가가諒解하기어려운바이다 支那는戰爭의準備도充分하지못하고 優秀한武器도업스나 決코日本을두려워하지는안는다 全世界는一介의農夫少年에不過한 支那兵卒이砲彈과手榴彈과 機關銃만으로 三個月間上海에서 日本大軍에抵抗한 事實을目擊하엿슬것이다 (寫眞은蔣介石)

席할수업다

紛爭原因은
스팀슨主義와聯盟
노氏公開狀發表

【하바나二十九日發同盟】큐바有數한 實業家요 平和主義者로著名한 푸레데릭、노안氏는 二十九日有力新聞마리노紙에 九個國條約國에 보내는公開狀을發表하야 스팀슨主義와 聯盟의弊害를指摘하야 紛爭의 責任이 極東에서 되고잇는 紛爭의責任이 誰에잇는가를 決定하기前에 爲先前回의 紛爭을 惹起케한 直接原因은스팀슨主義와聯盟十九個國委員會에잇다 平和가 極東에 回復되을 希望하면 먼저 스팀슨主義와 聯盟을 淸算함이 絶對必要하다 特히平和回復에 不可缺條件으로 余는 滿洲國의 即時正式承認을 主張하다 九個國條約國會議에 參加하는 代表諸君은 어떤旨를 諒解하야 各國政府에 滿洲國正式承認을 勸告하도록希望하여마지안는다

盲砲彈이炸裂되여
英兵士五名死傷
支那軍砲彈으로推定

【上海廿九日發同盟】廿九日午後七時頃 제스필드公園에서盲彈이 炸裂하야 英國兵一名이 即死하고 四名이負傷한 事件이發生한結果 이盲彈은 그後調查한結果 支那軍이 發射한砲彈이라고 推定되는 各種事實이 判明되엿는데 이와同樣으로 支那軍의砲彈은 佛國租界에도 落下하엿다

南總督三陟向發

【江陵三十日本社特派員金逹鎭發】總督一行은 昨日來의降雨로 말미아마 沿道가險하야 나뻐스므로 豫定보다 빨리 午前八時 襄陽을 出發하야 襄陽郡東生部落인中光 十里前에서 中心人物에 一場訓示를하고 卽時 注文津으로向하야 同十時에到着하엿다 注文津에서는 水産組合樓上에서 港內를視察한後 降雨를무릅쓰고 十一時江陵에 到着하엿는데 郡廳에서 江陵邑官民有志 一同을 接見하고 一場訓示를한 다음 晝食을 取하엿다가 正午後一行은 安木港을 視察하고 午後二時三陟으로向하야 出發하엿다

社會局內에
軍事援護部設置

【東京電話同盟】內務省社會局에서는 今番支那事變에際하야 軍事援護[illegible] 一月一日부터 事務[illegible]되엿다

財務局長更迭
今日正式發令

總督府事務官(司計課長) 水田直昌
任總督府財務局長(二等)
財務局長 林繁藏
依願免本官
從四位勳三等 林繁藏
命株式會社朝鮮殖產銀行頭取
依願免本官
總督府事務官(稅務課長) 奧村重正
命財務局司計課長
總督府事務官(稅務課長) 村山道雄
命財務局稅務課長兼務
總督府技師 [illegible]
陞叙高等官二等
總督府道理事官兼小作官 入島茂
依願免本官 前田[illegible]

人事·集會

▲足立正氏(北鮮製紙副社長)入京中 三十日夜 吉州에向發
▲吳永一氏(朝鮮商船株式會社取締役)廿九日入京 康商旅館에投宿

三地方六個校의 經營引退를 聲明

平壤三校와 儆新、啓星、信明

및 全會實行委員長 解理氏名義로

조선 북장로교선교회(北長老敎宣敎會)경영의 학교중 종교문제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물론되고잇는 평양(平壤)의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와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崇義女校)와 세 학교와 경성의 경신(儆新)과 대구(大邱)의 계성(啓星) 신명(信明)의 세학교에 대하야 동선교회위원장 문해리(文解理)씨는 이십칠일부로 중앙학교 당국에 발표하엿다 이 성명서에 의하면 그가 선교회가 미국의 전도본부와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선교회에서는 학교 경영에서 인퇴할 방침을 세웟다는 경과를 상세히 설명한후 끄트로

선교회에는 이미 평양의 세학교는 인퇴하기로 결정하엿고 전도본부가 인계(引繼)의 방책을 거부한까닭에 금월중으로 이 학교들은 정식으로 폐교를 당국에 신청케되엇다 또 대구의 두학교와 경성의 경신학교에서도 일천구백삼십구년(一九三九年) 삼월까지 인퇴를 보류하엿다 인퇴수속은 학무당국 조정에 의하야 처리하겟는데 시일은 언제라고 확언키어렵다 고명백히 설명하엿다 이로써 평양의 세학교는 삼십일로써 학교당국은 폐교신청수속을 밟고잇슴을 알수잇고 대구와 경성의 세학교에 대해서도 명년삼월까지에 인퇴키로 결정하엿다 하고 이개문제에는 전혀말한바가 업스니 이것을 미루어보면 이것도 평양의 세학교에 대한처리와 마찬가지로 앙드나 매도도 기부하려는것이 아닌가고 판측되어 금후의 문제는 더욱중대히 판측되고잇다

【聲明書】

(全文)

今日까지 米國北長老敎宣敎會는 朝鮮에 學校를 經營하야 왓는데 宣敎本部에서 一九三六年九月 傳道本部會議에서 決定한 方策은 그대로 잇스며 그후에 一九三七年十月十九日會議에서 傳道本部는 어떤 學校의 所有던지 賣却하지 안키로 決定하엿습니다

一九三六年六月宣敎會總會에서는 下記와 가티 校舍의 決議를 하엿습니다

「우리宣敎會學校를 維持하며 또한 그들이 깨다른 宗敎的目的을 破棄함을 그들에게 强要하지 안는것이 不可能하게 된 때에는 우리宣敎會가 現敎育界에서 引退하는 方策을 取함을 贊成한다」

그러므로 比律賓에서 來朝한 로저스博士와 支那에서 來朝한 압보트博士로 組織된 傳道本部의 派遣員이 傳道本部에 通告한 그 報告에 依據하기를 「吾人은 宣敎會의 意向을 尊重하야 ……」

〔以下 聲明書 本文 續〕

一九三七年十月二十七日

朝鮮北長老敎宣敎會實行委員長

百二十萬圓을 出捐

崇實專門校를 再建

學務局長諒解도 이미 成立

李鍾萬氏彗星的快擧

業社長李鍾萬씨의 장거로 이제 평양에 사립전문학교의 명맥을 잇게될것이 분명하게되엿다 숭실전문의 폐교를 바로 아깝게 녁이고 평양의 유지들이며 또출자부학무 당국과도 교섭한결과 대동학원(大同學院)을 설립하고 숭실전문을 인수하야 세워서 어 학무국장으로부터 최후적 양해를 이씨에게 주엇다

평양의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는 선교회측에서 폐교수속을 단행하게까지 되엿는데 이때에 대동광업주식회사사장 리종만(大同鑛

선교회에서는 학교를 전혀 폐하기로하엿음으로 그대로 인수는 못한다해도 그대신 새전문을 세우기로하고 명칭은 선교회의 양해가 잇스면 그대로 쓰기로 할 작정이며 또교사도 현재의 교사를 삼년간 빌리도록 교섭중이다 인계는 명년사월 신학기에 학생을모집토록 할작정으로 현재의 학생을 그대로 수용하여 문과(文科)만을두고 아프로는 농(農)과광산과(鑛山科)를 두게할 사범과(師範科)를 둘예정이다 (사진은 리종만씨)

道로傳達할뿐

遠矢學務係主任談

평양부청원시(遠矢)학무계주임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방금 두학교의 폐교신청수속은 ……

文科를師範科로

鑛山科까지 新設

校名引繼못하면 新校名으로

崇專再建案의 全貌

어와가티 대동학원은 숭전과 양수의량해가되면 그교명을쓰고 현재교사를 삼개년동안만빌려달라고 교섭중이라 그러치안흐면 다른교명으로할것이나 선교사(校舍)에곤난할 것으로 선교회측과 교섭중이라고한다 는 전연별개의 교육재단법인으로

"우리교육은우리손으로!"라는정열에불타는 동씨는 삼십일드디여 일백이십만원이라는 거액을 선교회측과의 사이에 교명(校名) 숭실전문학교의 재건(再建) 키로 학무당국과의사이에 (諒解)가성립되여 뉴-쓰 명 란

外國人이 문닷는다고

永永閉門은 羞恥

崇專再生의 恩人 李鍾萬氏 談

오십만원의 대동농원(大同農莊)를 만드러 우선으로 자작농장설(自作農)에 노력중이요 이번에는 일백이십만원이란 거재를 교사업을위하야 애낌업시 종만(李鍾萬)씨를전 사무실로찻즈니 큰일을 마튼긴장과 기쁨을 감추우며 겸손한태도로 다음과가티 감상을 말한다

지금막학무국장과의 사이에 완전히 량해가 성립되엿습니다 이번일은 그리 ○○○○ 결심이아니나 외국사람이 하다가 그만둔다고하고 영영문을 다치는 것은 우리의 수치로 생각되여 해볼라고결심하게된 것이옵시다 그러나 녀튼한여 유가잇서 시작한것은 아니니 압흐로 더욱 사회의 지지가 잇서야 될줄압니다 일반사회의 지도와편달을 어더 게획이 순조로 진행된다면 장차로는 대학까지라도 하여볼 가생각하고 잇습니다

兩校의 廢校手續

今朝平壤府에 提出

"宛名"의 誤錯으로 一旦返却

添附說明書는 亦是模糊

【平壤支局電話】평양숭의(崇義)여학교 숭실중학교는 드듸여삼십일오전열시 서류를 완비하야 당지서양인 학교서기로 엿는바 정근(朴貞根)씨가 서류를가지고 도청으로 접수를 식히지언코부청학무계로 접수식혓는바 서류의 와명(宛名)이 조선총독으로 되지안코 평남도지사로되여 즉석에서 서류를 바가식혓는데서 류를 수정하는대로 삼십일중에 재차제출할 예정이라고한다

그런데 이수속에 첨부된 문제의 재학생처분 학교재산처분에대한 설명서는 역시 모호하야 재학생은 명년삼월까지 학계책임을 질수업다는것과 학교재산은 양도나 매도는 할수업다는데 끄치고 양도나 매도를하지안흐면 아프로 어떠케처분하겟는냐는문제는 측급되지 안허 역시 도당국서는 만족하량해할수업게되는동시에 바각될것으로 어서류가 도청으로넘어가드라도 보고잇다

上海戰捷祝賀

提燈行列今夜에

旣定場所에 모혀 擧行

비가 와서 이틀이나 연기하엿든 경성부주최의 전승축하제 등행렬(戰勝祝賀提燈行列)은 삼십일저녁 여섯시에 어미 작정한장소에 모히여서 순서에따라 거행하기로되엿다한다

廢靴設驛을增許

정거장엽에서 구두닥는영업은 종래에 부산(釜山) 대구(大邱) 경성 평양(平壤)의 네곳뿐이엿는데 요지음에함흥(咸興) 원산(元山)의 두역이추가승인되엿다

함흥은 오만칠천 원산은육만일천의인구로 모두 면공서회사 공장등이 점점발전중가하고 요지음에는 증장개도 하려에평관함흥은 일천오백척(?)원산은 이천일백에수십인이라는 수효에달하야 려행객도 상당하엿슴것으로밧고잇다

森本部隊殊勳

戰捷奉告祭

今日朝鮮神宮에서

상해(上海)전선에잇서서 결정적대첩을 획하야 국민의 환희가 작으론중에 북지전선에서는 태원(太原)을 앞에두고 삼림부대(森本部隊)가 평정 (平定)을점령하며 적의 졸가테(?)를 임 전하 작렬한 적을 혼파하며 세웟슴으로 어산부대에서는 삼십일 오전열시 조선신궁에서 신령(?)을 사단장이하 참렬하야 전첩봉고제를 거행하엿다 (사진은 朝鮮神宮에서)

高級旅館專門竊盜

어제구일 부내 장곡천정(長谷川町)에잇는 비령두여관(?)에 괴도가 침입하야 어버삼십원이 들어잇슨 손님의 지갑을 훔쳐가지고는데 그전날 어성정(御成町)에 잇는 대동여관(大東旅館)에서도 손님의 양복 어백여원어치를 도난당하엿스므로 본정서에서는 범내를 엄탐하고잇는 러판전문도적을 엄탐중이라고한다

女子醫專創立을

醫專校長에一任

從來의關係者는全部退陣

故金鍾翊氏遺案遂落着

지난사월물일 고김종익(金鍾翊)씨가 이세상을 떠나며 사회사업에 일백칠십오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유언으로 기부하는데에 경성녀자의학전문학교설립을 위하야 금삼십만원을 기부한이래 어떠케 그유언이 잘 실행되여 녀자의학전문학교가실현될가하고 잇든중 그간경성녀자의학강습소측과 유언을집행할 사람들사이에 다소의견이 합치되지 안는점이 잇서 의학강습회를승격식힐것이가 또는 새로녀자의 전을 설립할것인가하야 자못문제는 의씨의 기부중에는 그간 고김종 문학교교수와 모면호사의 손을 재가 복잡하여오든바

新築消防署

上棟式擧行

정안 소방서(消防署)의 앞벽을기하고저 지난봄부터 공사중이든 태평통(太平通)의 경성소방서 청사는 드듸어 준공되여 삼십일오후부터 신청사옥상에서 편민다수참렬하에 성대한 상동식(上棟式)을 거행하얏는데 라치서는 시공관계로 량하고 예배상동식을 마친다음 래빈을 초송에 여사화하게되리라고 한다

은 배엇스나 와명(宛名)을조선총독으로 쓰지안흔 때문에고처 서오도록 일단바가식혓다 부청 으로서는 도로전달만할의무가잇 슬뿐이요 처리는 도청에서할것 이다

門) 현지정(峴底町)의 대까지 잘 알아볼수업게되엿다한다

兩校存續을絕對負責

玄校長急遽上京

啓聖、信明兩校對策討議코저

關係者에屢屢言明

【大邱支局電話】계성 신명두학교의 폐교문제가 아연중요화하게되자 량교당국자는 절대로 학교를 가지고 어두학교만은 경영을 계속할것이라고 한다 경영책은 다소 소동이 잇섯스나 밋순회 중앙위원이요 계성학교 교장인 현거선(玄居善)씨는 책임을지고 이를 진두하는한편 이십구일밤 밋순회에의 정을 다바여 경영은 인계할수가잇다고 라 아모문제업시 계속경영할수가잇 다고 두학교 재학생들과 학부 형들에게 루루언명을 하엿스나 다 가 문제해리씨를 만나최후협의하고저 상경하엿다 상경함에 현교장은 절대 로 두학교의장래에 대하야는 별 러가업다는것을 루루하언명하엿 다고한다

白晝에事牛放失

부내 도화정(桃花町)이백구십구번지 림연식(林延植)(?)이는 남대문통(南大門通)사정목「스즈끼」상회압에서 우차(牛車)의 집을 풀고잇는동 소가 무엇에 놀랏든지 어듸로가고말어 아직찻지못하엿다고 본정서에 계출하엿다

護送途中에

主犯이脫走

龍山署刑事隊狼狽

부내각경찰서관내에 금고도난사건이 빈발하는요사이 룡산서관내에 칠인조금고절도단이 잇서 형사대일동은 그동물 엄탐하든것을 무난히 진하야 형사대일동이 본서로 호송도중 그중주범인김모(金某)(二)가 몸이형사대의 한눈파는틈에 도보하야 탈로(脫逃)와가티 어듸로인지 종적을 감추어 랑패한형사대는 그 는비주비결주로 팔미아일대주 조에 큰눈날을피고잇다

잠상(?)(佐藤)씨의 손에 맡겨 사설(?)에 대한 구체안을 강구하는한편 부내 동숭정(東崇町)에 잇는 락산장(駱山莊)에 녀자의학전문학교 창립사무소를 두어 예이사무를 보고잇는동이라 ……

일을할수잇도록 하여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잇다한다 기부금액은 전기 삼십만원과에 경비로 삼십만원과 락산장 돈 십오만원 목조(木造)학교형재단으로 다른부십만원중에서 삼십만원을 모아 구십만원으로 이 것으로 부족하면 미망인측에서 십만원을 또기부할모양으로 당국의 허가만잇스면 명춘부터 개교케될모양이다

天氣豫報

今夜와明日은 개엿다가一時흐리다

昨日最高 一六度二
同 最低 八度七
今朝最低 五度一
今日正午 一四度九

特報 今日午前九時 京城測候所發表
京畿道第一區沿岸部 特報와 注意事項은 今日로서解消되엇다

待望의蹴球開幕

明新軍이儆新을擊破

力戰苦鬪十八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朝鮮體育會主催의 全朝鮮綜合競技蹴球大會第一日은 三十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엇다 맑게개인 스포츠늘가을하늘 一萬이 넘는 大觀衆의 환호속에 第二百餘選手의 入場式이 잇서 同大會長尹致昊氏의 開會辭가 잇서 昨年度優勝校儆新軍의 優勝旗返還이 잇슨다음 選手代表의 宣誓等이 잇고 李裕英君의 ……이 잇서 爲先 그先蹴으로 이어 遠來의 明新과 儆新의 第一回戰이 열리엇다 (寫眞은入場式)

◇中等部 【第一回戰】

明新 2 儆新 0

【第一次戰】遠來의 明新對儆新의 一回戰은 同日午後一時四十分부터 金化永(主審) 劉仁山(線審)의 三氏審判아래 明新의 先蹴으로 開始되바 前半十五分 明新一點을先取한後 後半戰에드러가 七分을넘기고 明新또 一點을加하야 二對零으로 儆新을一蹴하엿다

【明新】 崔錫龍 崔永龍 朴明鐘 朴熙秀 崔鍾世 吳景煥 姜錫福 鄭宗龍 金光慶 朴益換 崔斗三 李錫 孫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儆新】 金鎭鉉 金貞亮 許培根 金春峰 朴利鎬 陳錫均 朴春燁 金景煥 文洙璞 宋一燮 金行文 ……

狸

高價賣入 山口屋小動物園 東京下谷入谷三九(電話)

明治神宮競技

【東京電話同盟】明治神宮體育大會軟式庭球部男子中等及一般女子戰과 國際式卓球團式戰의 戰績은다음과갓다

◇第二回戰
文徽(金東根 張允孝)4—0 玉埼(森 小林)×
二高(康道淳 朴詰圭)4—1 古島(吉村 林)×
商大(尹興永 李國變)4—1 野長(深松 堀本)×

◇第三回戰
島前(佐佐木 同)4—2 明進(金貞德 全榮彩)×

◇第三回戰
渡邊(兵庫)2—0 李任雨(總府)
吉住(大阪)2—0 高岸鎭(普導)

龍中排球一勝

【東京電話同盟】明治神宮競技 排球第二日은 三十日前八時부터 神宮競技場에서 男子一般一、二回戰 男子中等一回戰을 擧行하바 그成績은 다음과갓다

▲男子中等一回戰
龍山中學 2 (21-15)(15-11) 0 中京商業(愛知)

松竹キネマ 連日滿員御禮(一日迄日延) 椿姫!! ガルボとテーラーの 御覽に成りましたか? 次週豫告 M・G・M社 夕陽特急 松竹大船 進軍の歌 明治座

內科專門 李承祿內科醫院 平壤府竹典里(신전골) 電話二一七六番

百補丸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京城昭志洞 平和堂 一劑一円

朝報案內 書店急募 (…)

鎭痛鎭咳 ゴモヒン 總販賣元 不老藥局 京城府仁寺町七五番地 電話光化門(3)二六九番 振替京城二七四五〇番 右試供品을要하시는時는(…)郵送하시옵

오-토바이堀出物案內

車名	年式	CC	型	價格	臺數
OK	三三	五〇〇	OHV 極上仕上	五五〇圓	二
トライアンフ	三三	五〇〇	SV	四五〇圓	
ラレー	三〇	五〇〇	SV	五二〇圓	
BSA	三〇	五〇〇	SV	四〇〇圓	
モトサコシ	三〇	五〇〇	OHV	五五〇圓	
ハーレータビツトフレ	三二	五〇〇	SV	四三〇圓	二
〃	二七	三五〇	BV	二四〇圓	
インデアン	二八	六七〇	SV	三六〇圓	
スーパーエクス	二八	七五〇	SV	三三〇圓	一

(詳細은說明書發呈합니다) 合名會社 萬城商會 東京下谷區御徒町三ノ五

肺病專門 財團法人 海州救世療養院 ◎本院案內書 ◎療養福音 無代進呈 院長 米國醫學博士 賀樂永 醫學士 李廷雨 醫學士 鄭士永 醫學士 李点鶴 朝鮮黃海道海州南山外 電話五一五番・振京一七〇六九

メリヤス洋服 既製服 仕入御案內 品質優良。廉價。製造卸。 三重福印メリヤス製造發賣元 山佐洋行內地部 大阪市北區末廣町(…) 東鄕印學生服特約賣捌所 現金卸問屋 坂野合名會社 京城府水町一四七 電話光化門一四二番

◎十月三十一日早起 日曜割引 洪吉童傳 ◎京城撮影所特作 洪吉童續篇 ◎PCL超特作全發聲版 現代喜劇 うそ倶樂部 京城新堂町 電話光化門五六七七番 新興座

三十一日より 四日間 階上席 十錢均一 日支事變ニュース 龍虎槍騎隊 ……ナミトツテイナ超特作日本版 ……ルウベソ・マ・ムウオリアン主演 歌へ陽氣に 毎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永樂町 本三一〇四 中央館

◇三十一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大邱朝鮮映畫社特作映畫 朝鮮名畫 무지개 ◇金剛・厥陽키네마合同超特作品 敍情詩 人生航路 監督安鍾和氏 主演 文藝峰 李源鎔 桃花劇場 大每ニュース 電話龍山一二三三番

堅牢優美價格低廉納品迅速 營業種目 金庫 鋼鐵製書類家具一式 鋼製品修繕一切 大邱府外新岩洞一二九三 株式會社 太陽金庫工業 電話一五〇四番 特約店取次販賣店及外務員大募集

性器障害治療新藥 塗布强精外用劑 セーブレビン 醫學博士 中井 創製 (…) 總代理店 京城府本町四丁目 (…)

藥用크림 아모파파야 ヤパパンモア 여드름 죽은깨 기미 除去 株式會社 谷田商店 東京

補血強壯

ブルトーゼ

부루도ㅣ제

健康充實の秋

藤澤製品

造血아우토호르몬에依한
旺盛한新陳代謝作用

造血아우토호르몬・부루도ㅣ제의使命은造血機能을亢進하야赤血球・血色素를顯著히增加하는同時에人體의生活元基가되는細胞原形質을賦活하야 旺盛한新陳代謝作用을振起케함에잇다 特히夏期以來衰退한胃腸機能을恢復하야食慾을增進하고榮養을充實케하며全身의抵抗力을强化하야免疫體及호르몬産生을促進하야新秋에潑溂한體力을涵養하게된다

各帝國大學病院常備藥

册子〃活動の源泉〃無代進呈

榮養不良	腺病質 急性慢性貧血 熱病恢復期 産後等	ブルトーゼ (小瓶一・〇〇大瓶三・二〇)
神經衰弱	神經性諸疾患 皮膚疾患 梅毒病 白血病等	アルゼンブルトーゼ (小瓶一・三〇大瓶三・七〇)
腺病質	動脈硬化 喘息 虚弱兒童 肋膜炎等	ヨードブルトーゼ (小瓶一・三〇大瓶三・七〇)
食慾不振	胃腸疾患 疾患後の衰弱 ヒステリー等	キナブルトーゼ (小瓶一・三〇大瓶三・七〇)
肺結核	咽頭結核 肋膜炎 肺炎加答兒 結核性疾患等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小瓶一・六〇大瓶四・三〇)
安產强兒	姙前産後 乳幼兒虚弱 佝僂病 過勞等	ネオブルトーゼ錠 (百錠 一・〇〇 三百錠 一・八〇)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藤澤友吉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軍手製造

益益需要時代來る！

●軍手製造家大募集

カタログ無代進呈

繁店獨特のツギメナシ軍手製造に限る 大好評注文殺到即刻申込あれ

京城府西大門町一の八四番地 常盤商會

本社 平壤支局 電話一〇四四番

美活石鹸

이 활 비 누

株式会社 吉田久四郎商店

日・英・米・獨・佛特許

◦器械鍼療法◦

◎◎◎實地講習科 通信講習科 速成講習科

學則開業文獻送呈(郵券六錢要)

朝鮮語로講習함

奥村療法 朝鮮学院

◎所在地 京城府大和町三丁目五五番地
◎本院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電話土佐堀二八四三番

◇特典 修了者全國無試驗開業ヲ得 圖書必要關係書類完備

昭和의常識

金鑛은百萬分之五含有면上質 金三匁을어드려면적어도六百貫의鑛石이든다

氣候가 變할때에게입어버릇하는것이感氣에안걸리는秘訣입니다

仁丹

御旗은勝利에輝

身心總動員에際하야國民은
이健康法이絶對必要

먼저 그러케함에는、第一로 胃腸의健全을保全하지안흐면 안됩니다 現今、國家運動으로서 부르지지는國民體位의向上도亦是、各各胃腸의健、不健에달렷다는것도 決코過言은안입니다 그러므로必然的으로心身鍛鍊과 共히 再檢討할것은 各自의胃腸입니다 胃는조고마한 過食으로도 變調가되기쉽고 그것을導火로해서 모든 難症을惹起하는것이 普通입니다 그런故로 먼저過食한경우에는 勿論 普通食事後에도 胃의機能을 補助할만한 消化素仁丹을먹는 習慣이야말로 日常健康에必須한 條件이라고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此際消化素로서 仁丹의 常用은 그獨特한 馥郁한口薰、芳香과口腔에浸透하는 淸凉味全身에 밋치는爽快感과 共히實로無二의 胃腸强化調整藥입니다 仁丹은 胃의活動을促進하고胃液을 調節해서宿醉惡醉에도 그速效는顯著합니다 또胃腸內의炎症、腐敗、中毒을 업새고 吸收活動을 敏活히해서 榮養을充分케하는우에 仁丹은 十六藥種의 主成分과 新成分五種 (動植物兩호르몬、비타민B、사포닌、朝鮮人蔘) 을添加하고 榮養과强壯의 效果를 一層徹底케합니다 여기에 잇서서 仁丹의常用은 다만 我等의게 重大한 國民體位向上의實을 擧하는대 가장理想的인 素質을 만드는것이라고할수잇습니다

仁丹은健康에輝

銀粒仁丹은 生長、發育의 榮養要素인 비타민B를 特히豐富히 含有식히고特히病氣의豫防作用에는 定評이잇습니다 御徳用瓶入 二千二百粒 壹圓

本舖・森下仁丹株式會社

少年朝鮮日報

보시시요

이슬과서리는 엇재서나릴까

보기만달텃지한형제간

가을이되면 안개가 나리고조금더 추어지면 서리가 나리게 됩니다。

아침일직이 이러나보면 산과 들은 말할것도업고 집웅이나나무가지가 하야케서리가 더펴 잇는것을 여러분은보시겟지요 이러한 서리는 대체 어떠케 된것 이며 어째서 나리게 되는지 알겟습니까

서리가 나리면나무입사귀가 하로밤사이에 시들어 버리 므로 세상에서는찬것은서리며 독한것을 서리갓다고들합니다。

그러나 실상을알고보면 나무 입사귀는 서리로 말미아마 서리독을 마저서 시드러버리는 것이 아니요 날세가 치위저서 시들어버리는겐니다。

도리어 서리는 찬것이아니라 이러케지독스러운 워치를 풀리게하는 작용을합니다。

서리는 공기가운데 잇는 수증기(水蒸氣)가 밤사이에 풀공기로 말미아마 한데 뭉처저서 된것입니다 이것이 날세가 더우면 이슬이 되고 날세가 추우면 서리가 됩니다

서리가 나리는 밤의 기온은 반드시 영하로 나려가야만 나립니다 그리고 밤에기온이 영하로 나려서 우수의 모든 물건이 차지면 그 부근에잇는 공기도여기따라서 차집니다。

그래서 수증기가꽉차게 거기서 어름처럼 뭉처서 싸느라케 식은물건에 부디치면 어러버리는것이 서리입니다。

조선에서도 일직이 양력구월부터 그다음해 오월까지 서리가 나리는수도 잇습니다 농사짓는데는 이서리가 별로 해로울것은 아니나 너무 일직 나리면 아직 여물기 전에 서리를 마저서 곡식이 죽어버리는수가 잇는데 이것을「상재」라고하야 농가에서무섭게 여기는것입니다 너무 일직이 나리는 서리로 말미아마 벼 콩、배추 가튼 것이 이러버리면 큰일입니다 이러한「상재」는대개 산골작이에 만습니다 땅이 노프면 서리가 일직나리게됩니다。

그리고 알맛게나리는 서리는 늣게익는 농작물을 재촉하야결실을 도우는데 려름습니다。

벼와 눈은 얼마나 만히왓는지 재일수가 잇고 실지로 칙후소가튼데서 게산해내기는하나 서리는 게산올하기가 끈난합니다 백이의(白耳義)나라의『그라푸치오ㅡ』라는 학자님은 일천팔백구십사년에 나무가지에 나린 서리를 계산해내엿습니다。그결과『스그리』라는나무의가지 일백평방센치메ㅡ터에 五・五그람、버드나무가지 二〇三평방 센치메ㅡ려에 三四・一그람의 서리가 나린것을」게산하엿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것을 서행하지못하나 어느날 밤에 서리가 나린다는것을 미러 아라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잇습니다。

멍멍 합창대

도, 레, 미, 파, 솔, 라, 세, 도, 보렴 연습해봅시다

한날한시에도 春(봄)夏(여름)秋(가을)冬(겨울)

여러분 봄이가면 여름이오고 여름이가면 가을이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것은 다 아는일입니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잇는데는 느진가을이 아닙니까? 서리가오고 낙엽이지고하는 느진가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때에 여 세상에는 꼿이 만발하게되고종달새가 우지지는 따뜻한 봄날의 나라가잇다고하면 고지듯겟습니까? 아니 봄날일뿐만아니라 여름에는 나무입이 욱어저서푸른 그늘을 어루고 하늘에는뭉게뭉게 쟁쟁하게 쪼여서 사람들은 모두 집에 가마니 드러안저서도 땀을 뻘뻘흘리는 여름철인 나라도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알기는 가을이면 가을인가보다、여름이면 여름인가보다하지마는 실상 어지구상에는 춘하추동사시절이 일시에 드러잇는것엽니다。

그러면 대체로 지금 봄철 맛난 나라는 어데일까요?

◇

첫째 적도(赤道)를 면난나라는 아프리카대륙이라고 하는데엽니다 여기는 남아메리카에 엇는나라입데 여기는 우리는가을이되며 류월달부터 시월까지 겨울이되여서 칠월 팔월경이 아주 되게추워겨울이고 구월부터는 봄이되기 시작하여서 요새어는 아주 봄의로 한창 따뜻한 봄날이라고합니다。산과 들에는 꼿치피고 새들은 여 한창을 아주 재미나게 지난다고합니다。

◇

그러면 저곳이 여름인 나라는 어데나하면 여러분도 아시겟지마는 인도라는 봄데는 땅이 얼지나 눈이 오지 가려라는데가잇는데신에 일년내 가도록 눈과 어름이 녹지안는데도잇지마는 대개는 지금이 여름입니다。섣달、섣이월、일월 이월 사개월은 인도로서는 그다지 더운 여름은아니라고하드래도 그래도 나제는 기온이 팔십도이고 밤이라도 륙십도나 된다고하니 우리가 사는곳의 기후로 말하면 지금이 한여름인 셈입니다。

◇

다음으로 가을인데는 대개 우리가 살고잇는 여기이지마는 그러면 겨울은 어데이냐 하면 저ㅡ 시베리아북쪽입니다。거기 우리 딸견쯤되면서 벌서 겨울이 날리기 시작해서 지금쯤은 눈 산과 들엔 ... 눈 차히고 어름이 벽박가리 어러부러서 털목도리 털모자 털옷 털신이 아니고는 문밧게 나서지못한다고합니다。이러케 칩고서 사람이 어떠케하는가고 생각하시겟지마는 거기사는사람들은 이러한 치위에 달려나서는 어 오면 썰매를타고 산으로들로 허매는것이 더욱 재미난다고합니다。

우습단지

별따기

어떤날밤이엿습니다、수남이가 길다란 장대를들고 한울을처다보며 무엇을 따는모양입니다。영히가 여메와서보다가

『얘 뭘하고잇니ㅡ』

『응 별을딴단다』

『에이바보、별을딸라면 집웅우에서 따지나진데서야 따지나』

돈애끼는법

아버지『애 요새돈이귀해서야 단돈이다 애껴써라』

순돌이『네 아라요。그래서과자도 팍동장으로 드러다먹어요』

내가쓴누나글씨

선생님께서 더진이를 부르시드니

『이게 내가지은작문이란 말이지』

『네 제가지엇습니다。』

『그래、이게 네글씨냐』

『네 제글씨구만요』

『뭐 네글씨야、이놈 이게네누이글씨인대그래』

『아참 누님만벌을보앗더니그만누님글시처럼됏군요 헤ㅡ』

못된버릇

아저씨『애 너는잘때 왜입을버리고자느냐 못쓴다』

인순이『내가입을버리고자요 그럼리가잇나요』

『정말여거에 떡해서 하는말이다』

『아니 그럼리어섯습니다。그렴오늘밤에잘때 머리마레 겨울을버티어노코 들랍니다 정말인가아너가』

오늘은무슨날

『얘 오늘이 무슨요일이냐?』

『더 섯는줄고잇서언니 좀보렴』

『어걱어제치야 금세오늘이 무슨요일이냐 응』

童話 너구리고개

어떨어ㄷ리면 뒤사람

任元鎬

그어느 산고개 욱어진 숩속에 백년묵은 너구리한마리가 살고잇섯습니다 백년묵은 너구리는 재주를잘부려 밤마다 나와서 이리로 오고가는 길손을 안냄겨둡니다 재주를 한번넘으면 하늘만치 커다란 사람이되어 만나는사람을 그대로 집어생킵니다。

그래 세상사람들은 이산고개를 너구리고개라 이름지엇습니다 너구리고개 무서운고개 어심푸레 날만저믈면 아 ... 이따금씩기자 업섯습니다 운된 사람들이 너구리를잡으려고 가기도 햇습니다만은 잡기는커녕가는사람마다 쌀어오는이가 업섯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날 이른방마실에 나무꾼 하나이 나섯습니다。

『그따위 너구리놈 내가서 녹인다』

나무꾼은 대포를 부리며 썩 나섯습니다 칼도 안찻고 그냥 빈손으로 단거를 너구리고개를 차저갓습니다 고개우에올랏스니 정말입니다 숩속에서 무서운 너구리가 튀어나왓습니다 너구리는 펄적재주를 넘더니만 장승만한 사람이되어 들어멤빕니다。

『게잇서! 먹을테다』

하지만 나무꾼은 겁안내고 떡한번 올렷습니다。

『그래 먹을테면 먹어라 한도 너와 맴볼 커지는 재주만앗고 적어지는재주는 모르니?』

어깨를젓고 너구리는

『몰르긴 왜몰러』

하더니만 자랑하노라 다시 재주를넘어 어린 애기가되엇습니다。

『어만하면 됏지?』

『좀 고까지것을?』

『그럼 더해?——』

너구리는 또한번 재주를넘엇습니다 그래 이번엔 꼬맹이 오뚝이가되어 팔짝나무꾼의 손바닥으로 뛰어올라 오뚝 섯습니다。

『옳지 잘한다 참말 어쁘다어디더한번적어저봐라야』

이말에 오뚝이는 다시또 한번 재주를넘엇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번엔 조고만겁정콩이되어 대구를 손바닥에서 굴럿습니다。

어떠라 나무꾼은 얼른 고 엥치기 ... 입안에다 툭디렷습니다 그리고는 남남남 입맛을 다섯습니다。백년묵은 너구리 인제는 고만이냐 너구리고개 이제는 아무런 ... 섯습니다 밤중에도 길손의 발짝소리가 들렷습니다 (끗)

歷史이야기

신라해상활동

文一平 先生

통일시대의 신라문화를 말할때에 그의 해상활동(海上活動)을 말하지 안을수 업습니다。

신라는 동서남삼방면(三方面)어 바다에 둘러엇슨만큼 바다우에 만흔활동이 엇섯습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할것업시 신라사람의 배뜻대가보이지 안는데가 업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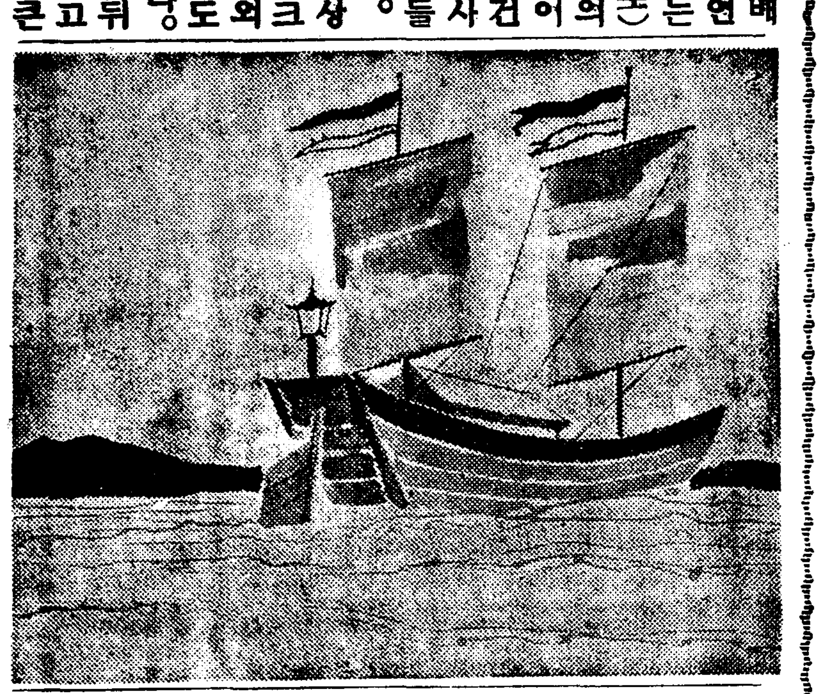
여웃나라에 보내는 신라사절(使節)의 배들이며 당나라와 연도(印度)에 건너가는 신라 류학생(留學生)과류학승 (留學僧)의 배들 이며 그보다 어들의 외국 으로 물건올실고다니는 신라사람의 장사 하는 배들이더욱 만헛습니다。

그리하야 신라해상교통(海上交通)어 크게 열리는 동서에 외국과 무역 (貿易)도 잘행하게되엿습니다。

통일시대의 월신뒤에 신라사람 장보고(張保皐)라고하는 큰부호(富豪)가 잇섯습니다。이분은 신라해상활동을 독차지하다시피하엿는데 그배는 여러 백척어 잇서서 신라와 일본과 당나라사이로 오락가락하엿습니다。

신라 사람이 혼이 장보고의배를 타고다닌것은 말할것도업거니와 그때 일본사람들까지도 장보고의배를 라고 다니엿습니다。당나라에가는 일본사절을버롯하야 당나라에가는 일본류학생과 류학승이 모두 이장보고의 배를타고 다녓다고합니다。

어것을 보면장보고는 신라해상왕(海上王)이라고도 할만합니다。여러분 장보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이로써 신라때 해상활동이 얼마나 커던것을 짐작할것이아닙니까。이와가티 신라사람은 바다우에서 활동을 잘하엿기때문에 그문화가 크게빗나고 그무역이 잘발전되엿습니다。



재미잇고 신나는「매사냥」이야기

예날에도햇고 지금도한다

총이 생겨거전녯날에는 꿩을 사냥 한다면 대개 매사냥 이엇습니다。즉 매를 길드려 가지고 산人 속이나 벌판으로 쪼차 가서는 매를 노하 꿩을 잡는 것엽니다。하거는 실쌍 총사냥 보담 매사냥에 더용감스럽고 씩씩해서 총어 생긴후에도 매사냥이만헛 습니다。지금도 아조 서울로 나려 갓서는 매사냥어 터러 엇는모양입니다。먼저길든 매를 발을 잡아매서 어께 우에 언人고 꿩어 엇슬만한곳으로 갑니다。그래서는모리人군을시켜어 꿩을투겨 내고는 매를 얼른 끌러 놋습 니다。매는 위세잇서 날러서꿩을 쪼차가서는 꿩을잡어 떨어 트립니다。

재바른 꿩도 매의 아페서는 꼼짝 못하고 열의 여덜아홉은 다 잡히게 됩니다。그런데 매를 다리고 나을때 조금 세장人겨가 날만큼 굼겨 노하야지 배불리 먹어엇다가는 꿩을 잘 잡지 안습니다。또 꿩을 잡이 곳 조차 가서 그것을 빼아서야지 그러치 안해서는 제가 모두 뜨더 먹고 또다시 잡으러 돌지를 안습니다。그러니까 한번 꿩이 떨어 지는것을 보면 곳 논둘、고밧둘이고 그 떨어진 곳으로 쪼차가는것입니다。그게 말하자면 매사냥도 용감도 하고 씩씩도 하게 되는 까닭입니다。매는 길도 잘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원래 날쌔고 기운센종자와 그러치 못한 종자가 잇습니다。우리조선에는 해동청(海東靑)이라는 매가 잇서서 아조 꿩을 잘 잡기로 유명합니다。그러나 어떤매고 꿩어 떼로 날를때는 어떤놈을 잡을지 몰라서 도리어 정신을 차리지못하게 됩니다。그래서 속담에도『떼꿩에매눈갓다』고 하는말이 생긴것입니다。

사진은 매사냥꾼

개연줄알고길렀는데 알고보니늑대

『덴마ㅡ크』란나라『코펜하ㅡ겐』에서 멀지안흔 정거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엽니다

정거장 역부가 기차지나간뒤의 푸래트홈을 돌아다니다가 석유상자속에서 개가짓고잇는것을 보앗습니다

그리하야 그사람은 얼른 끌어올려가지고 개를모라내어보앗는데 그것은사랑스런 암사시안종자의개엿습니다

원래 개를조화하는이사람은 주인이 차즈러올때까지 개를길르고 산보하려나갓습니다

그뒤에 돌아와서 다시개를모아노코자할때 정말개주인여와서 하는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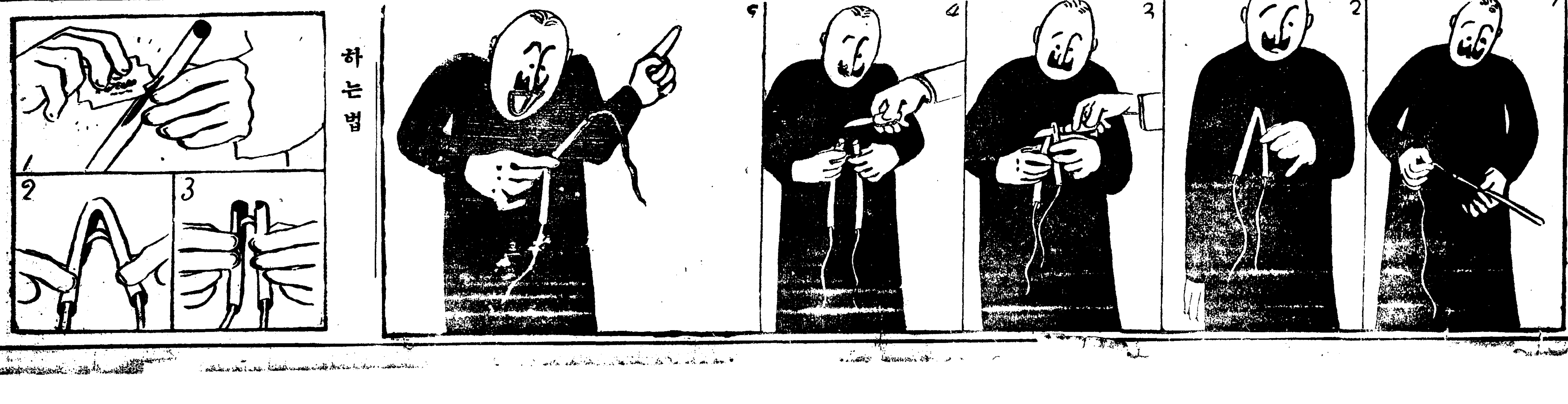
『이사람아 그것은 개가아니라 늑대로세』하고 깜짝놀랏습니다

알고보니 그것은 멀정한늑대로서 동물원에 다리고가는길이엿습니다

그러니 늑대를 개로알고산보하는데 몰고갓던 역부는 눈이 둥그래젓습니다。

"이럼요술아세요"

밀집으로하는요술잘보십시요。그리하는법은이신문구텡이에잇습니다



하는법

鍾金 作家의才質과力量

獨角生

今日에 와서 저널리즘이라고하면 그것이 꼭 우습고 하치안코 갑이업는 물건의 代名詞로 되지라 남을 물론하고도 저널리즘 乃至 거기의 追隨者로써 하고 다시 그에게 그렇을 가하며도 꼭 마찬가지로한다。事實로 오늘의 저널리즘에는 一般 民衆의 低俗한 嗜好를 迎合하고 浮薄한 趣味를 助長시키는同時에 學究나 藝術家로서 取할바의 眞摯한 態度와는 距離가 大端히 멀며 나는 저널리즘의 이러한 事實을 否認하거나 두둔하려기보담은 가장 排擊하는 사람中의 하나다。그러나 저널리즘을 排擊한다고해서 그것이 못하는데서 自體의 力量이나 才質을 反省하지안코 無條件 저널리즘에로 盲從시키는것은 千萬不當한일이다。더구나 글도 변변히 업는사람들로는 文靑들이 現在 自己네의 未熟을 깨닷지는안코 文筆의 저널리즘만 탓하는것은 一대체 우수한 才質이다 現代作家의 知識은 얼마나 그 所謂 純藝術에 드러맛는것이지 모르되 그의서 그大部分은 新聞雜誌에 依하야 發表되는것이 아니가。眞一 長篇도 그의短篇만하면 되엿든들 그 作家自身으로 하여금 구태여 그러한 군소리를 할必要는 업지안엇슬까。勿論 作家에 따라서 長篇에 堪能한분도잇고 短篇에 能한분도 잇고 또 小說에도 時에 時長을 가진분도 잇슬것이다。모파상은 長篇어 短篇것고 도스토엡스키는 短篇이 長篇것다고 말하거니와 그러타고 모파상의 地位를 [illegible] 도스토엡스키의 소설을 읽을수가 잇도 아니다 事實이 自己를 發揮하엿든들 우리는 그들에게서 [illegible] 를 줌이 노라 하엿을수잇지안흘까。아니 그보담도 그들은 果然 언제든지나 저널리즘에 迎合치안하서 自身으로서도 自信이 엇는 長篇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가。비단 現代뿐이 아니요 옛날어라고 하던지도 一般大衆은 恒常 低俗한 嗜好와 浮薄한 趣味에 흐르기 쉬웟고 또 거기 迎合하는것으로써 一時의 人氣를 끄는 部類도 업지아니햇슬레리 그러한 現象을 써어넘어서서 當代의 文學에 貢獻한 사람도 차츰 그 數가 드물지안타。가까운 例로는 夏目漱石가튼이도 그의 作品을 新聞에 揭載하엿고 그 業은 그의 一般으로부터 [illegible] 歡迎을 바덧거만 그를 저널리즘에 迎合하다고 攻擊하얏다는말도 못듯고 또 그가 저널리즘으로 因하야 自己의 作品이 그릇됨을 慨嘆하엿다는 이야기도 못들엇다。作家로서는 저널리즘을 탓하기前에 무엇 自己의 才質과 力量을 알아야한다。眞一 自己의 才質과 力量만 넉넉하다면 저널리즘 그것까지도 그下風에 屈服시키기 不可能치 안할것이다。

新聞小說의再檢討

作家에對한要望과批評家의態度 (4)

韓植

長篇으로써의 確固한포-ㅁ을 맨들기爲하야 在來의 慣習과다른樣의 模倣으로도 버서나며自然主義的 이머레이순과가튼說明體의安易한 스타일로부터 脫出할必要를 늣겨야할것이다。이精神的時代의 明暗을如實히 表現하며 現代社會의 波瀾의한가운데서그의主流를捕捉하기爲하여서도 모든 瞬間에 생기는 生活現象을 完全히 캐취하기를 爲하여서도반다시 長篇으로서의 健實한포-ㅁ과 골포지순을 形成하도록 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다음으로써 생각하여야할것은 素材의問題다。今日의 新聞小說이 그千篇一律的內容、人間愛慾의 여러가지姿態、狹小한生活經驗의報告、이와가튼것들의 되푸리는 取材의貧困이라는 一面을 말함이니 인제는 讀者大衆의興味조차 끄을수업슬만한 만네리즘의 階段에 이르럿다고 말할수가잇다。또 그것이 假令身邊世界의 雜多한 各種의 테-마라고할지라도、萬若에 作家들의 批判的精神과 形象化의 豐富가 잇섯다고할것가트면 오늘날과가튼 貧寒한取材範圍가 얼마간이라도救助할수가 잇섯슬것이다。今日과가튼 作家들의皮相的리아리즘으로써는 또僅少한世界觀으로써는 到底히題材의貧困을若干이라도補捉할수는업는지경이다。그러니까 取材의貧困은 決코、그것만을떼여서 作者들의把握한 리아리즘의深淺、現實認識의 度와分離하야 생각할수가업기는할것이다。그러나何如튼、

深

今日의 新聞小說과 長篇의眞的低下의 半分의 理由는 너머도 身邊雜記的의 題材와狹小한 스토리-의、스테로타입으로 原因되고잇다。本來부터 우리네 作家들의 社會的視野는 狹小하며 그生活經驗은 貧弱하야 글로由來되는 테-마의劃一化는 가리울수업는事實이엿든것이다。文壇小說이 漸次로劃一化하며 만네리즘에 떠러지고잇는것은 이러한 原因으로 더욱加重된것이 多大한것은 더말할것업다。우리는 어제부터 集團과群衆의移動 生産生活에從事하는人間들의動向 씩씩한 能動的이고 社會的活動에 參與하고잇는 雜多한人物의 配置、그외가튼 여러階級 여러生活層의 人間을 綜合하는 社會關係、이러한것들을 多元的으 [illegible]

複雜한 諸條件의 活字로부터뛰여나오는 스토리-의運搬、이와가튼것을 全體的으로 豊富히取扱하려는 努力을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어떄까지와달리 우리는 作家들의 社會的視野의 透徹과取材의·擴大를부르짓게되여야할것이다

東京文壇에잇서서 루포루타-쥬文學이最近에擡頭되며 流行되고잇스며 作家들의 國際的만인드의傾向이 漸次로 濃厚하여지는傾向을 볼수가 잇다。이것은 또全世界的의 流行으로도되고잇스니 何如튼 어와가튼傾向은 모다 純文學의貧困을 救援하는一策으로써 題材의 事實性과擴大의必要로부터 생기며素材의開拓을 爲하려는 現象으로부터 發生하는것이니 우리들의注目을 大段히要請하는바이다。우에서도 말한것과가티 勿論 純文學의 貧困을 救援하는 方法은 오로지 題材의 廣汎性、素材의社會性에만 엇는것이 아니다。어떠한題材라도、그것을가장高고感銘깊으로 藝術化하는때의 作家들의 題材를料理하는 方法에 잇서서 卽素材에

(海)(外)(異)(聞)

米國은말도적

아메리카人처럼 여러나라의 말을 自國語에 攝取하는 國民은 업을것이다。本來 英語가 엿적이 英國을 支配한 일이 엇든 丁抹、놀만、세미、푸렌치、세미、맷취와 겔만出身인 王室의 使用語等이 混되것인데 아메리카式 英語는 거기다가 다시 짜잉을 해가지고 어떤나라의 말이나 그대로 삼켜어 버리어서 꼭가튼 同義語가 수두룩하게되고엇는 現象이다。米國의 言語學者푸랑크氏가 發表한바에依하면 다음 十個語가 가장典型的이니

(一) 벙가로(벵갈語)
(二) 베란다(印度語)
(三) 피카니니(兒童)(스페인語)
(四) 카보스(廚房)(和蘭語)
(五) 기모노(日本語)
(六) 피자마(印度語)
(七) 아베쥬-(佛語)
(八) 솔트(選)(羅典語)
(九) 피포포타마스(河馬)(希臘語)
(十) 포레-토(아메리카·인디안語)

라고 한다。

漢文易解의方法

◇…各種의符號를使用하자 (一)

李圭鳳

一、만드는理由

漢文이란 本來틀이 遺이엇다。처음엔 宇宙의奧妙한理致를 創으로가르처주고 다음엔 사람의當行할義理를 글로傳하더니 人文의複雜함을따러 宇宙의理致를깨다릇이 次次커지며 사람의行할道理도 이外로서 글과行實이 멀리갈려지매、글엔文人 才士의道具로變하여지고 道는精儀 愚夫의良心에 저저젓다。

그뒤론 漢文學은 工夫하는길이라어도 變論하는文章이나 修養하는人道나 明道하는哲學로난우어젓는데 至今지吹하면 漢文을文章學문으로되고서 배우기어려운 그글이아니면 못되며하나어는漢文이란觀內를 任圓해도려다보지못한까닭이다。

『上』『下』字와가티 치던指事와 『日』『月』字와가티 모양을본딴象形이더니 다음엔 形聲으로『江』『河』字와 거리『三』(ㅅ邊의原形)은 形을 象하고『工』『可』는聲音을取하여고 會意로『人』『言』의뜻을 合하야『信』字를만들고『止』『戈』의뜻을合하야『武』字를 만들엇다가、나중엔『老』『考』字와가티 가튼뜻으로 意味를 둘로하던 轉注라든지『令』『長』字와가티 이뜻을 갓다가 다른뜻을만들어活用하던 假借까지여 여섯가지法則으로 漢字를만들어 쓰는方面을 말리 宇宙의奧妙함과 活用의놀라운法은 世界어느나라、文字와 比하든지 [illegible]

[illegible] 사람마다 제 知識의아는程度까지 풀어보게되엿는데 제각금엇는 알지못한다고排斥만할것이랴?

오늘날科學이 모다極度로發達되여 적으面으로 그中한가지만 알려도다못하는이때에 廢物처럼 落伍된이漢文을 再吟味할必要가 업겟지마는 所謂科學은形而下로 實驗의알기쉬운것과 人生에必需된 物質上應用에는 正確고도必要타안할수업스나 形而上의알기어려운것을 學者의理想的으로 測定된은 다表現狀態의 測定이기로 그裏面까지 밋는다고는할기어려울뿐아니라 더구나사람의뜻에서 배워야할道理—하늘·사람사이와 사람·사람사이에當行할道理와그밧것은 무엇보다도 漢文의古典學이 [illegible] 西洋學者들도 是認하는傾向이 아닌가? 나와가지안한을 排斥하고 그當時의 崇尙으로만 따러가려는것은 우리人類의 通弊이나 그런다고 東洋의까진 文學조차제가열어보지못하게되며、제各其처 [illegible]

서 제가누군지도 엇게풀려여니어어져 하늘이낸本意랴?

그런즉漢文을모다 學問觀하야 廢物처럼 보는이때에 다시普遍化하려함은 어려석은일이어나、[illegible]者와가티 배울이적은듯으로 어리석은 修養부터함으로서도 이廢棄에걸린 漢文에符號까지질러普遍化하려함도 不得已한苦衷이어조수입은은 아니겟다。

前날에 漢學이崇尙하야 一平生동안勞力하여도 充無識되거어려운 그런漢文은 첫재풀어보게해걸게가 만혼까닭이니 이런符號만다도 本뜻어바로 새여지고 안될은알것수업스나 어떤뜻으로 새어든지 그뜻대로는 分明히풀어보기에 쉽도록 하자는것일것이다。

그럼으로 여러符號法에 漢文典을 다시금 中等校의쓰던 漢文讀本中에서 採擇하야쓰되 特히一二年級用에서 만히썻엇으며 符號를漢文가운데 第一어려워서 [illegible] 가면이생겻을 바라는바이다。

二、吐漢文에關한表解

자、쓰는標號

此書를 漢文에符號를달려 알어보기쉽게하는데는 아래여덟가지標點을定하엿스니

(一)은 句節뗄다는 符號로 한句節안에서 다시 句節을떼여보게된것에니 어를句節標라定하며

(二)、는 接續·副詞란 符號로 말을連續키어 아래말을 엇고는데 쓰는것이니、어를 接續이라 定하며

(三)·은 形容한거란 符號로서『의』나『인』『한』吐를 써서 아래말을 가르키는데 쓰는거어라 定하며

(四)「」는 上動詞란 符號로『에』『를』과『가』『이』『로』『은』等吐를 써서 끄구로 새어는데 쓰는거어니 [illegible] 下動詞標를쓰며、거게는것을 表出함에는 ㅋ과는標를쓰며 만일 下他動에되여 目的格이 他動의에엇는때는『」標를쓰고 어를下動標라定하며

(五)▼▲는 前置된다는 符號로『에』『에게』『에서』『보다』『와』『과』等을 구로 푸는데 쓰는것이니 이를『前置標』라 定하며 例것을 表出함에는 ▽△標를쓰며

(六)ㄱㄴ은 自動된다는 符號로 目的格이나타지안코 自動이라거나 決定하는 形容에는 쓰는것이니 역도 다『自動標』라 定하며

(七)『』은 [illegible]

(八) [illegible]

한것이다。

나、各標의用例

(一)、句節標는 吐대신 句節만떼여보게되므로 내리읽어나가니 어를 크게 나우면 (一) 起頭되는말이 第一먼저새이는것과 (二)제句節안에서만 먼저 새어는것 두가지잇스니

(一)、은(一)夫、學은(대저、배움은『一ノ三四=朝鮮語漢文一卷의三十四課』)、『今夫』水는(어제저、물은『二ノ二〇』)의 起頭되는 副詞字(어는대게吐나 名詞가그말에잇음)와(2) 感歎詞(噫嗚라슬프구나 [illegible])의 感歎詞와 (3) [illegible] (집에 문 [illegible])에 제자가 엇서서『二ノ一[illegible]』의語詞로 全篇의 段落지 [illegible]한것。

─(未完)─

詩情畵意 (三)

失名 詩　金[illegible] 畵

아해야 硯水빽어라 [illegible]게신데 편지하자
검은며 흰조허는 [illegible] 보련마는
저못대 날파가라여 그러기만 하도다

作

따면 作家들이 제아무리 [illegible] 의 批判的理想/作家의人生觀、世界觀、創作力等을 發揮하고는 [illegible] 創作할수가 업는것이다。어와가튼것의 反證으로써는 [illegible] 家가 그取材에 잇서서 [illegible] 術的 表現의 [illegible] 하지만은 또 어떠 가지의 [illegible] 스템을 巧妙하게 맨드러보이지마는 그것들은 [illegible] 者의 創造的눈이 흐려지기때문에 民衆의 卑俗한 趣味에迎合할수는 엇든때도 讀者에게 [illegible]的共感力을 가지울수는 업섯든것으로써도 充分히 證明되는것이다。그러니까 어와가튼 例에잇서와가티 取材의 廣汎性만 主張할것가튼면 取材의 [illegible]과 題材의 [illegible]力의 喪失을 따라서 作者의 個性도 文學의 發展도 消失하여버릴것은 當然한다。우리는 取材의 廣汎性 社會性을 主張하면서도 題材第一主義를 내세우지 안는 理由는 여기잇다。어떠한 理由에 따라서 우리는 題材가 通俗的이라

的

고해서 [illegible] 하나、낫게 [illegible]하지안흘것이다 [illegible] 테-마의 [illegible]라고하는것은 오직 [illegible] 取扱하다는것 [illegible]을 말함이아니라 도로혀 [illegible] 取扱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오늘날新聞小說의通俗性을 克服하는것은 오로지 素材를가르치 말할뿐만아니라 오히려 作家들이 素材를社會化하는方法이 通俗的 어라고하는것을 더욱 指摘하고저한다 그러하야 作品에 眞實한 藝術的生命을가치주고 作品에다社會性을 賦與하는것은 素材보담 도로혀 作者의方法 現實認識의 深度等에 [illegible]다고 할수가 잇을뿐만아니라 도여러가지 題材를보담다-살이 거라하는 때문에 도 作家의 主觀的의 角度 [illegible] 人生觀의 正確한思想의 [illegible]等이 長篇에잇서서 가장 [illegible]한 問題로되는것이다。何如튼 우리네 作家들의 共通의 欠點은 取材의消極性과 [illegible]性的의 두가지들을 수가잇다 이제로부터의 長篇으로서의 新聞小說은 必然的으로 取材의 擴大와 아울러 作家의

本

主觀的 [illegible] 人生觀으로로 흘어나오는 [illegible]과 知性의 活動을 더욱 힘세게 밧어야 할것이다。今日以後의 新聞小說은 더욱 作家들의 唯一의社會性 知性의 [illegible]으로 第一조[illegible]로 되고잇는것이다。[illegible] 批判的精神을 일키우는時期를 당하야 作家들의 [illegible]力의如何는 必然的으로 知性的追求의 [illegible]과 人間의活力의 高低 [illegible] 實을 [illegible]할수가잇는가를 [illegible]해보는 [illegible] 好의찬스로써 新小說의 [illegible]되고잇는것이라고 할수가잇다 如何히 作家들의 現實[illegible]로써 社會的의 [illegible]約과 個人的 文學[illegible]과의 [illegible]에 苦悶을 맛볼다[illegible]라도 우리文學의 [illegible]을 [illegible]하야 오로지 나머저 엇는 [illegible]을 닷지지말기를 [illegible]하야 [illegible]期에섯다고 말할수잇는新聞小說의 打開策을 오文學者들은 協力하여 [illegible]하여 보지어다。그러한때를當하야 우리들은 本來 文學이라는것은 作家들면으로부터 低劣한讀者의 趣味에低下하야 迎合하며 [illegible]하는것이어나고 大衆의 興味를끄오면서도·그들의感情에 呼訴하며 感動식히는것이며 또 노픈目標에 向하야 讀者들을 啓蒙하며 새로운文化的 機能을 그들에게 豊富히 남겨주며 눈을밝게하여주는 態度로서만 비로소 文學的存在의 價値를가질수가 잇다는것과 또『時代的

社

의 社會的의 [illegible]約과 個人的 文學[illegible]을 高度로 綜合하야 讀者와 몃自己까지도 [illegible]足시킬수가잇는作家야말로 完全히 [社]會的作家라고 할것이다」라는 初步的 原則이라도 다시금 [illegible]하여볼必要가잇는것이다。「完」

小品 黃葉

李陸史

사람들은 어름알보다 더冷淡하고 [illegible]가리 [illegible]라도 그때도 제대로는 人情도잇고 눈물도잇서 [illegible]사람을 사이에는 못보면 보고저하고 보면[illegible] 울듯이도 [illegible]의 表情을비저내며 季節에 따라서는 눈물겨울한 [illegible]모양이나『내』라는 [illegible]人은 [illegible]도 [illegible]하고 [illegible]도 [illegible]하지못한데 요즈음 엇전지 [illegible] 작年보다 다만 해지서 [illegible]것도 못견되겟늣겨지지도 안키니와 보지못해 못견될사람도엇고 消息이라도 못하려 [illegible]、더[illegible]하고 [illegible]한이가업다。그러나 [illegible]이 世上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잇다고하면 나는 [illegible]라도그 [illegible]에게 나의 [illegible]을 알려야하지만은 지금의 나에게는 그러한 [illegible]조차업다。다만 [illegible]을 [illegible]한 사람이 잇거든 가을바람에 [illegible]히 흘러가는 黃葉의 [illegible]을 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해다그리고 그어느 한조각이라도 주어다가 그대들의 册床우에 꼬처두고 그黃葉이 바람에 나부기며 울며부르짓는 서러운[illegible]을 들어보아라……

……그놈의 거[illegible]를 [illegible] 도어고 저는[illegible]에서 떠어저 왓슴니다。그래서 거리에 서잇는동안 [illegible]의 人[illegible]를 다보앗슴니다。그러나그 [illegible]는 모다비슷비슷한 人間들이엿고 별다른 놈은 못보앗슴니다 그것은 十年前일이라고생각됨니다。어느날午後 내밧[illegible]지나가는 少年이 잇섯슴니다、머친놈가리 중얼대는 말을 가만히드르니『루나-르』의 日記외이는게지『불상한놈! 불상한놈!』고거중얼하엿슴니다、그뒤로는 每日가티 아침에도 내밧밋을지나고 저녁에도 내밧미를지나는동안에 나는어느사이에그만그녀석하고 親해젓슴니다、그래서 그녀석의 正體를 알수잇섯슴니다

그녀석은 어느시골에서 出生해서 서울와다는데 그出家한 理由가 어린녀석하고는 맹랑햇슴니다 그녀석의 집은어[illegible]어둔가봐요 아침으로 [illegible] [illegible]나가면 오다시 [illegible] 白모래바타 [illegible]서 오기는햇스나 섬[illegible] 건너간 갈매기가 [illegible]그럽다고 하는것을보면 그래도 어린[illegible]가 머리를 [illegible]거가는모양이겟지요 그[illegible]나는 우리들이 [illegible]만나는 時間이되면 그녀석이 하마나 오나하고 기달리기도햇슴니다 그[illegible]에 밤자욱 소리가나 [illegible] 그녀석이『하이네』니『[illegible]』니의 詩集[illegible]이고 [illegible]도잇섯슴니다 그리고 몃해가 지난 어느해봄에 내가진 冬眠으로부터 [illegible]한 천둥소리[illegible] 또그[illegible]을 만낫슴니다 그때는[illegible]서 그녀석은 십부게를 少年이아니라 依例히 그相對者를 다리고 어둑어둑한 黃昏에 내엽해와서 갓즈러울만큼 [illegible]이며 [illegible]의『메뉴-』를 [illegible]의『고로-』람 보다 [illegible]하게꾸미는것이엇슴니다。

[illegible]을 지나며 바가오나 [illegible]이 되엿슴니다 그러나 人間들이[illegible]잇서서는 [illegible]의 [illegible]은 [illegible]과 [illegible]을 [illegible]나보요 그해의 [illegible]을 어느으스름달밤에 나는이[illegible]을 [illegible]로 내는[illegible]해서 보는것이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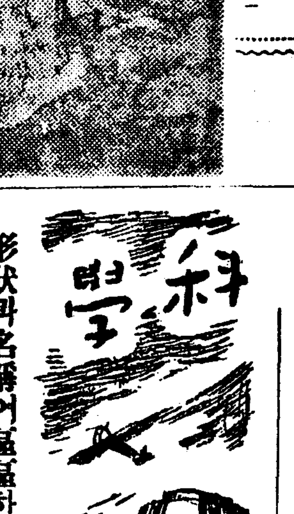
『여보! 우리두사람이 서로사랑하면 그만이지 사랑을 [illegible]에 對한 [illegible]으로 하는데가 어데잇소。』

이러케 그녀석은 말하는것이엿슴니다。

그것도 [illegible]이치안홋게 그때쯤은 그녀석의 [illegible]이란 [illegible]지라우를[illegible]도 하엿거니와 제예비[illegible]을 [illegible]도로 [illegible]하야 집을 나선놈이니까。

『그러치만은 엇절수가 잇서야지요』

어것이 그녀석의 말에 [illegible]진 [illegible]이엿슴니다。그뒤나는 十年이란 긴동안 이사람들의 속삭임을 [illegible]을수는 업섯슴니다。



形狀과名稱어區區한 卷雲의分類表

一記者

氣象學에 잇서서 卷雲이라하는것은 대단히 어려운것이다。卷雲의 定義라든지 性質에對하야서는 氣象學書에 쓰여잇스나 實地에잇서서는 氣象學書에쓰여잇는 그대로 언제든지 標準形의 卷雲이 나타나고 標準의範圍內에 나타나주다면 問題업스나 그러케되지안흔 卷雲이잇스므로 어것을觀測하는데는 困難한데 한두가지가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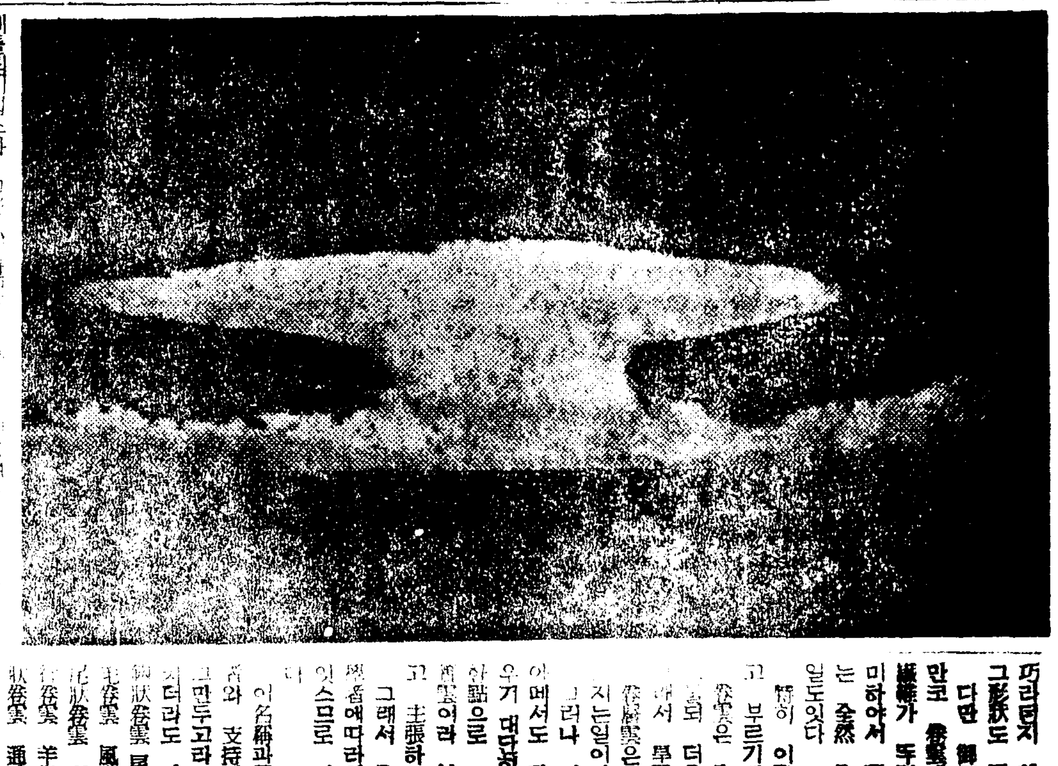
現在 氣象界에서 採用하고잇는 雲級은 斷然多數한 雲形을 지나서 今日에이른것으로 그雲形만을 어어게된것이어도 여러가지의 說明을 늘저안코면안되나 여기서는 다만 卷雲이란것을 如何히 取扱하나냐는것을 草略해이야기하고자한다。

形狀及高度

卷雲은 國際名을(Cirrus)라하야 구름가운데서도 第一노픈곳에 떠잇서서 푸른하늘에 힌구름이 纖維狀으로浮遊하고잇다 그 形狀이 마치서 머리럭가튼것도잇고 실가튼것 때로는鳥狀羽毛가튼것이 엇다。그 外에도 여러가지가 잇스나 여기서 그것을 다헤어릴수업다。

그노피는 普通地上六千米突로부러 一萬米突사이에잇스나 때로는 그以上에 잇슬때도잇다。

國際雲級圖의 說明에 依하면 溫帶에 잇서서의 平均高度는 六千米突로하고 寒帶에서는 三千米突에 [illegible] 極地에서는 地面近處에 잇기도 한다고 註解해두엇는데 [illegible]것인지모르나 水滴으로 成立되여엇다



에 [illegible]이업스나 [illegible] 보는사람에 따라서 그때氣分으로 各各달리判定하게된다。가령 엇던사람은 여호꼬리갓다고보나 엇던사람은 어것을빗자루와갓다고 볼지도모른다。

그것이 設或 水滴이라하더라도 [illegible] 그러므로 [illegible] 通어다。

卷雲의種類

種類라하면 조금區別하기 엇스나 卽 卷雲을 形狀과 其他의理由에依하야 分類하고 그것에제마다 무슨卷雲이란 名稱을부처노앗다。

이것은 조금困難한일이엿다 [illegible]에 따라서 區區하고 公認된무엇이언다。

氣象觀測에는 다만卷雲이라하고 別로히必要할때는 그形狀과運動狀態를 觀察에 記入해두는것이다。

主로 그形狀에 依하야 名稱을부처두는 結果로 여겻은 名稱이 [illegible]

卷雲의種類에 鐵床雲이란것이 잇다。라프[illegible]가티 생겻다 鐵床雲의 名稱은 英語로『에빌크로우드』로부터 譯한것인데 東洋에서도 이名稱으로 借用하고엇다。

英國과가티 工業 特히鐵工業이 發達한곳에서는 鐵床이란것을 흔히볼수잇스나 다른데서는 어것을 알리하고잇다。

엿구통은 [illegible] 噴出한것으로 노파七千米突 [illegible] 鐵床雲만이 [illegible]에 나머잇기도 한다。어떤때는 누가보아도 卷雲으로 밧게생각되지 안는다。

雷雲의 上部에서 噴出되면大氣의 上層에서는 鐵床雲의 外에 火焰狀 라코[illegible]양(朝顏狀) 等 여러가지의 구름이 떠잇기도한다。低氣壓으로부터 噴出되여서 卷雲과 卷層雲이 나타난다。卷層雲이란것은 卷雲과 [illegible] 空間으로서 高度라든지 發生[illegible]

[illegible]이名稱과種類가운데는 그命名者와 支持者가 엇는데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普通쓰여잇는것만 지더라도 다음과갓다。

鉤狀卷雲 尾狀卷雲 肋骨卷雲 羽毛狀卷雲 風吹卷雲 馬尾狀卷雲 猫花狀卷雲 斑狀卷雲 霧狀卷雲 直狀卷雲 羊毛狀卷雲 旦狀卷雲 帶射卷雲 通常卷雲 乳房卷雲 反狀卷雲 絹糸卷雲 短毛卷雲 波狀卷雲 斷帶卷雲等이 잇다。

國際新雲級의分類

國際雲級으로는 다만 纖狀卷雲 鉤狀卷雲 濃厚卷雲 殘留卷雲等의 네가지가엇다。

纖狀卷雲이란것은 直線도잇고 조금 꾸부러진것도 잇스나 纖維이 斷然한것이며 鉤狀卷雲이란것은 콤마形이나 낙시모양으로 생긴것이다。

濃厚卷雲은 纖維狀과 線狀이 아니고 卷層雲의 一部나 그러치안흐면 中層雲이 나 아닌가 하고 의섬하도록 濃厚한 구름이다

殘留卷雲이라하는것은 鐵床雲 積雲의 頭部의 水晶部分이 바람에 불려서 된구름이다。

옛날에는 僞卷雲이라하는것도 여러가지엇섯는데 그것은 大槪 물방울(水滴)이며 實相卷雲은아니다。

어런까닭에 僞卷雲이라고한다 日本氣象學界의 權威者인 藤原咲平博士는 天氣를 네가지 種[illegible]

雜記帳

『新羅』語源一考

×金城×

[illegible]濟의 帝室을 夫餘氏라고 하는데 濟洲語로 夫餘는 쇠라는『애신』이요 夫餘는 部落이라는『조론』니。실상 姓氏라는 氏가 아니요 部落의 어름이엇슬것이다。淸은 大金帝國의 後裔이엇 金이라는 部落의 名稱을 가젓 저어 姓異한것도 업는 엘어로되 部落을 金城이라고 하고 王室의 姓을 金이라고 하는 新羅의 記錄을 이와 서로 對照하야 생각한다면 그여시 興味잇는 問題다。아니 新羅라는 그 國名조차 新의 訓『새』가 곳 쇠를 意味하고 羅의 音『라』가 곳 奴那等字와 함께 壤地의 땅어라는『나』乃至 우리 古語의 땅이라는『따』를 意味하야『쇠땅』이라는 뜻을 表하여 아니엇슬가。新羅의 別稱인 徐那伐、徐伐、斯羅、斯盧가 지금 우리말의 서울(京)等이 모다 그 語義를 이『쇠땅』으로 解할수 업슬까。蘇塗文을 蘇金이라고도 한점으로 보아서 그當時 蘇文어 金이라는말과 近似한 音이엇든것을 알게 되고 新羅를 [illegible]『시라기』蒙古語에서『솔롱고스』滿洲語에서『솔롱호』라고 하는점으로 미루어서 新羅의 新字가『지』乃至『소』에 가깝게 읽어진다는것을 앎게 된다。더구나 그 都城을 金城이라고 하는 것과 王室의 姓이 金인것을 생각한것에 新羅나 金城이나 마찬가지의 말이요 거저서 王室의 姓이 由來되엇다고 推斷하는것도 單純한 臆測만은 아니다。黃金櫃에서 金閼智가 나와서 金으로 姓을 삼앗다는등 少昊金天氏의 子孫이 되가젓다는등 하는것은 모도다 附會의 말이다。事實은 [illegible] 部落名을 淸帝室의 氏라고 일컷는것이 金이라는 都名 乃至 國名으로 新羅王室의 姓을 이룬것인지 모른다。그러면 三國史記에 金閼智가 始林속 金櫃中에서 나올때 닭어 그아래서 울어서 始林을 鷄林이라고 고치는同時 鷄林으로 國號를 삼앗다고하고 三國遺事에 始林은『作樹林』이라고 하얏다。始林은勿論 또한가지 新羅의 別稱이요 鷄는 모다 그 訓을『쇄』로 읽어서 다시 始林의 別稱이나 아니엇슬가 疑心한다。쇠를 滿洲語에서는 애신이라고 한다함은 여미 말한바어니와 오로코語에서는『아세』라고하고엇다。애신에서『쇠』이러케 볼때 쇠는곳 애신에서『애』의 音이 脫落하고 진어쇠로 轉變된것인에 틀림어업다。(錢山)

新刊紹介

▲朝鮮山林會報 十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農林局內 朝鮮山林會 振替京城九六八二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萬博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有樂町一의二 日本萬國博覽會事務局 振替東京八四二二八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基督申報 第一○三一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番 基督申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番 定價一部五錢

中篇小說 人生特急 【24】

盧春城 作　崔根培 畵

農場 (四)

최서방은 민농갑이 자기안해를 라놈이고안해가 피투성이가되여 발악하는광경을 보고는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업섯다。그는 당장에 눈에쌍심지가 빼치며 악이머리끗까지 올랏다。

『이놈아 이 개딸두 못한놈아!』

최서방은 발로 하마가튼 민농갑의 엉둥이를 죽어라하고 되려찻다。민농갑은 활딱 일어서며

『이놈이 사람을 정말 죽이라네』

『이 재자식아 너가튼놈은 좀 죽여봐야해』

최서방은 홍분김에 여페잇는 방망이를 들어 민농갑의 대갈통을 냅다 갈겻다。

『아이고……』

민농갑은 소눈깔가티 눈이 뒤래지며 방바닥에 쓰러젓다。

『이놈아 이 개가튼자식 그래 백주에 남의 안해를 겁탈을해─』

최서방의 발길은 농갑의 엉덩이를 벌차듯이 거더찻다。

『아이고 죽겟다……』

농갑은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는소리를하고 허둥대며 몸엿다。그러나 최서방은 아직두 화가풀리지를 아니하여

『이런놈은 밧에서 끄러내여동리에 그엇행을 알려야지』

그는 개거품을물고 발길로 서너번 또 민농갑을 거더찻다。그리고 농갑을 게거리 끄러서 밧가들로 내여노핫다。

『아이고 죽겟다』

민농갑은 눈을 치거부치고 자승에 괴루서이가되여 죽은상이 되엿다。

동리사람이 한사람 두사람모여 들엇다。어느듯 서여명이모여서

『큰일이로군……』

모두 입을 버리고 어쩌할줄을 몰랏다。

『아 그 게거품을어、글세 안해에게 정진하려고 제발을 해주면……에이 죽여지 바작바작 씹어먹어두 시원치안켓다』

하고 최서방은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엇다。

『어째는 집으로 모서 가야지!』

하고 그중 키골이나하고 힘센 장정한놈이 농갑을업엇다。

『그놈 어서 뒤여지라고 내버려두게……』

최서방은 또한번 외쳣다。

민농갑은 아무 정신이업시、

『아이고 호─』

[illegible] 이러케、외마디 소리를 첫다。

『허、저、최서방이 사람을 죽엿군……』

여메 늙은이 한분이 또 어러케 외엿다。

『아그놈죽고 나죽으면 그만이지? 글세 백주에 남의유부녀 잇서야지 겁탈을 다니는놈은 당장 때려죽여야해……』

최서방은 이러케 또 외치며 다 죽어 업혀가는 민농갑을 흉패한드시 바라보앗다。

민농갑은 그날저녁으로 읍내 병원으로 떠메여 드러갓다。의사에게 응급치료를 바덧스나 최서방의 방망이에 그만 뇌진탕이되여 그다음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엇다。그러나 와바면에 최서방과 그의 연명히는 주재소로 잡혀갈 [illegible] 서로 넘어갓다。

민농갑의 시체를 해부하고 [illegible] 실의 진상을 자서히 조사한 결과 칠서에서는 명히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지안햇다하여 무죄석방하엿다。그러나 최서방은 상해치사라는 죄명으로 [illegible]와함께 검사국으로 넘어갓다。

그러나 동리에서는 민농갑의 죽엄을 아까워하는사람도 업고 또는 도리어 고소하다고 [illegible]하는 사람도 업섯다。

이 민농갑의 죽엄은 신문에 자세히 발표되고 또는 [illegible]집까지 알려젓다。그러나 서 공부하는 영순에게는 자구도 백지안햇다。

演藝 娛樂

棋道中興의巨烽火!

朝鮮棋院의 名譜本社獨占

第一回揭載는蔡丁兩氏對局譜

本社에서는 일직부터 讀者의 高尙한 趣味에 資供하기위해서 率先해서 棋譜와 博譜를 실어오든바 그동안 여러가지 事情으로因해서 잠깐 棋譜揭載를 中止한것은 어더케한든지 좀더 內容의 完璧充實한 棋譜를 採擇하려고 努力한때문이엿는데 今番에는 斯道의 淵藪이며 最高權威인 朝鮮棋院과 連絡하여 斯界의 權威者들만 網羅하는同時에 國手들의 得意譜만을 採擇하여 連載하기로하엿다 棋道가 近來에와서는 그本來의 高邁한 精神을 잃어버리고 些技妙術에만 떠러지려하는 이때에 斯界重鎭들의 棋譜를 실게되는것은 그러한 조치못한 傾向에 對해서 頂門의 一針이 되는同時에 棋道中興의 完全한 礎石이 노혀지는것이라고 볼수잇는것이다。

그래서 第一回의 揭載譜는오는十一月一日부터 우리棋界의領袖格인 蔡極文 丁奎春兩氏의對局譜를 실켓는데 이兩雄이 渾身의 精力을다해서 雌雄을 決하는 어板局이야말로 風雲雨化의 奇妙한地境으로 드러가서보는사람으로하여금 陶然恍惚의感을 禁치못하게할것이니 이것이야말로 秋期의 씨ー즌에 드러선 愛棋家의 名譜일것이다。이제 對局을 압둔 兩國手의 心境을 打診하건대 些少한 勝負의 觀念을 떠나서 全혀 우리 棋道樹立에 獻身的인 名譜를 提供하겟다고하니 이好敵手의 布策用兵의 眞法은 讀者의 絕大한 期待를 바들수잇슬것이다。(사진은 蔡丁兩氏의對局하는光景)

히總統의令弟 레스토랑開業

그모토ー에日 『大飮•大食•但禁政治論』

勢力과 名聲이 한께 天動地하는 第三帝國의 總裁官 히틀러ー總統의 아우가 伯林에서 레스토랑을開業해서 伯林의 總人氣를集中하고잇는데 이李氏는 일흠은 아로이스、히틀러ー라고하며 總統 히틀러ー의 異母弟라고한다、總統이 伯林에 드러와서 獨逸宰相이되기 一年前인 一九三二年伯林에와서 쇠ー로테뿌르그驛車場附近에 적은 酒場을 내엿든바 나치스黨員들의 名將들이 出入하기 始作하면서 非常히 繁昌해서 이때 벌서 한살림미천이나 장만해가지고 이번에는『中央進出』을 꿈꾸고 伯林의 繁華街가이 윗텐베르그廣場에 레스토랑을 내인것이다 레스토랑의 일홈은『레스토랑、아이로스』라고 부르면서 히틀러ー라고하지안흔것을보면 그래도 姓을 내여노키는 家門에 累蠱이될가바 特히 念慮를 한모양인데 內部에 드러가면『賢兄』히틀러ー總統의 프로필四枚가 벽에 걸려잇고 한쪽벽에는『만히 마시고 만히 먹으라、그러나 여기서 政治論을 하여서는안된다』는것을 서부친것은 主人公의 心境을 如實히 表現한것이라고할까 何如間 開業以來로 每日每夜 超滿員의 大盛況을 이루엇다고하는데 어 아이로스君은 히틀러 總統과 얼골이 꼭 가티게 얼골의 輪廓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코이라든지 심지어 그수염까지 아주판에박은듯시 가려서 한데세워노코보면 아주 알어볼수업슬만치 꼭갓다고한다

北漢、道峯山間의 奇秀한五峯山코ー스

道中의牛耳洞도絕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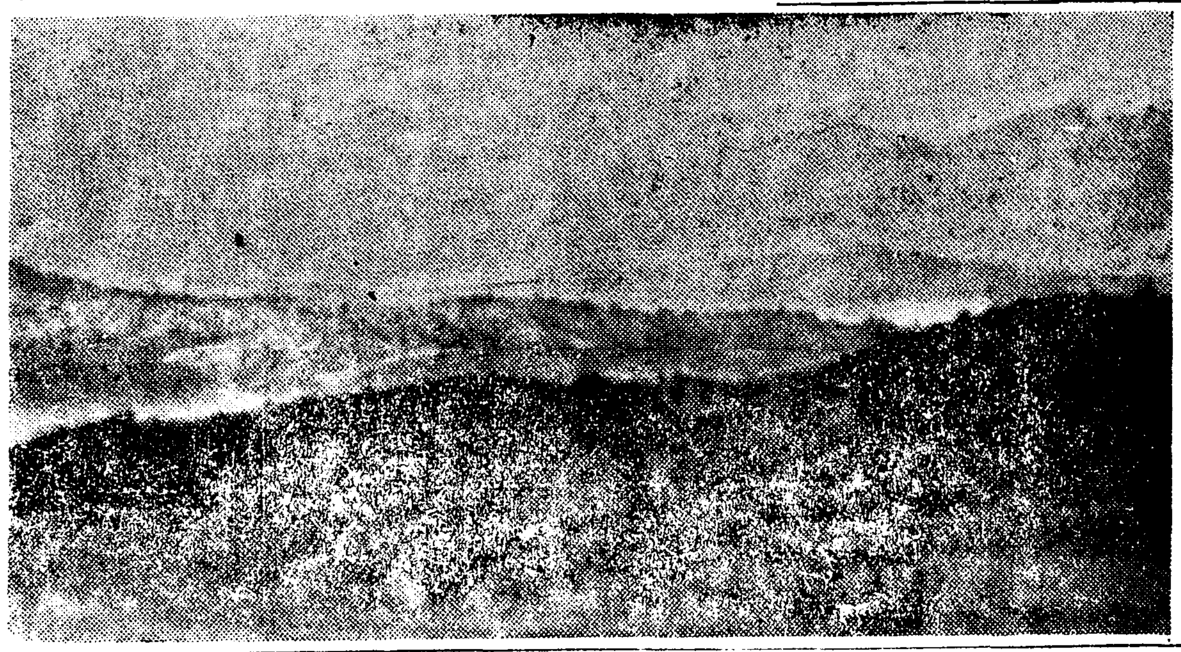
汽車並乘의一日行程

코ー쓰만 다를뿐이지 北漢山과 道峯山과 다 한줄기의山이다 길은 不坦하나 距離가 멀어 往復徒步는 大端히 어려우며、京城驛 또는 淸凉里驛에서 汽車를타고 倉洞驛에서 나리게된다 驛에서 牛耳洞까지는 約三粁가되는대 牛耳里於口까지오면 西北便으로 北漢道峯兩山의 中間이되는 牛耳嶺이되는대 여기서부터 山谷間 좁은길로 맑고적은 시내를 엽헤끼고 좁고도 고불고불하게된 小路로 올나가면 얼마 안가서 五峯山 마루턱에 이르게되며 奇奇妙妙하게 생긴바위들이 눈압헤 보인다 바위들이 奇妙한것도보기드문일이겟지만 꼭무슨 食器를 엎어논것갓기도하고 또한 옹기종기 모혀소스바위들을 어찌보면 귀여운이 잇서 도보이며 多情스러운듯키도보인다 여기서 잠깐 땀을 식히고 南君쪽으로보이는 모래언덕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山稜을 타고 올라가면 어五峯山의 第一高峯峰에 오르게된다 이高峰에서 四面에 둘러싸인 가을風景을 얼마든지 吟味할수잇스니 가을의 風味는 여기서 흠씬 나오는가십다 더욱이 요사이는 瀰山에 紅葉이 물드럿스니 이山에오르는맛 加一層더 조흘터이고밋는다 도라오는 길은 온길을되도라올수도 잇스나 여기서 五粁쯤되는곳에 圓通庵이 잇스니 圓通庵으로해서 나려오는길도平坦하니 이절을 구경하고 一時間쯤 나려와도 넉넉잡고 一時間이면 倉洞驛에 이를수잇다

路程

淸凉里驛(汽車)──倉洞驛(九、九二粁)──牛耳里(四粁約一時間半)──牛耳嶺(二粁約一時間)──五峰(三粁約一時間半)──圓通庵(四、三〇粁約一時間)──倉洞驛(汽車)──淸凉里驛

汽車賃往復 三十錢 徒步距離 約十九粁 所要時間 約七時間 (사진은 北漢山)



『사진설명』 白雲가튼衣裳에싸인 에리노아•포ー웰

十六미리通信

世界最小의 矮人死去

하롤드•파이오타는 本名보담도차라리『타이니•팀』(豆맹이팀)으로 알려진 世界第一의矮人이 九月末에 英國헤메르헴스테드에서 死去하엿다。厥公은 죽기전 그곳展人定期市에 구경꺼리로나왓다가 죽엇는데 나이는五十一歲이엿다。그러면대체로 그身長은 얼마나되느냐하면 겨우二十三吋(五八、四二센치、又는一尺九寸二分八六)이며 體重은 二十四폰드、(一〇、八八六四키로그람)又는 二貫九百三匁〇四)엿다。

여기을 본우리네의 幼兒發育標準表의男兒에 비취보면 身長은 生後二個月(五八、一센치)와 二個月半(五九、三센치)에 새이며 體重은生後一年半(一〇、一一키로그람)과二個年(一一、〇二키로그람)의사이에 該當한다 厥公은 英國의 스톡포ー트에서 나서 兩親은 普通사람과까티 컷다고한다 그리고 世界大戰當時 戰線의慰問者로서세번이나 戰地에나갓든일도잇다고한다。

佛蘭西革命 記念의밤

『佛蘭西革命記念의밤』이라고해서 歷史的으로有名한 파리ー•토ー야트•가ー되에서 夜會가開催되엿다ー 當夜는 巴里社交界의花形은勿論、劇界의스타ー等 各各盛裝을하고 出席하엿다。그래서 어夜會의 人氣의焦點이라고할만한것은 무어니무어니해도 最後의假裝이라하는 社交딴스인데 어때萬若 假裝하고잇는 相對의婦人이 누구이라는것을 마스크의 우으로보고서 아리마치는사람이잇스면 그婦人은 十五分間의 接吻을許하지아니할수업다고하니 딴스를하면서도 스테에注意하는것보담도 그婦人이 누구이라는것을 아러내이려고애쓰는것도 當然한일。

담배피우는노루 牛乳로자라서

뉴ー질란드의 비ー배것드의 界隈에 뒷발로서 홍종하게 담배를 피우는 白尾의 노루가잇서서 人氣를 끌고잇다。生後十八個月을 經過한 이놈는 同市의 레이몬드•베켓트라고하는 사람에게 지 數時間밧게 經過하지아니하고 붓들려서 그뒤부터는『펫트』라고하는 일홈을엇고 家族의 一人으로할려지게되엿다 그래서 每日絹布의 布團에 자면서 미르크로 朝餐을삼는 奏養스러운 生活을하든 『펫트』君은 또한 여간쭉러기가아니엿다。그러나 最近에는 담배까지 피울줄알어서 그담배를 排出해서 通行人에게 어더먹게되엿는데 그人氣는 바야흐로 百파ー센트의 絕頂에 어르럿다。

流行의뉴ー쓰映畫

描速主義의止揚期

今後의發展이注目處

뉴ー쓰興行에 對해서 一二의새로운傾向을 적어보기로 하자 첫재 興行時間을 한時間以上을 넘기지아니하려하는 것이다 五十分이 제일 適當하지 벌서 한時間쯤되면 觀客을 보드래도 疲勞한 빗치보힌다고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차라리 될수잇는대로 時間을 오래끗도록 하려하든것이 最近에와서는 어느것이나 時間을 短縮하려는努力이 보힌다고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개는 한時間쯤은 觀衆하는데이것은 훨신短縮을하여도 조흘것이다。

뉴ー쓰映畫가 이러한 弱點을 가진反面에 打擊을 맛는것은 漫畫이다 觀客은 뉴ー쓰나 보려고하지 漫畫는 全然보려고하지안는다 그러면 뉴ー쓰映畫 自體는 內容이 重大한 問題를 가진것이다 그러면 最初에는 뉴ー쓰는 配給社가 모다 빨리 上映하기만 다투어서 到着順으로 封切 上映을 햇스나 요사이는 編輯에도 十分의 注意를하여서 抽速主義를 排斥하는모양이다 여기에 對해서는 多少의 異論도 잇슬이지마는 뉴ー쓰映畫도 結局은 商品이상上 잘팔리게 만드는것은 當然한일이다 더구나 配給會社가 여러개잇서서 가튼場面을 세번이고 네번이고 보히는것은 上映하는쪽으로서도 재미업는일이고 보는 觀客도 疲勞하게만하는 것이니 이것을 어더케던지 改善하지아니하면 안될일이다。

洋畫名社 在庫品 (四)

유나이트

大自然의亂舞 하와ー드•호크스와 윌리암•와이라ー監督。에드와ー드•아놀드、프란세스•파아ー마共演

孔雀夫人 윌리암•와이라ー監督。우올터ー•휴ー스톤、루스•챠다ー톤、메리아스타ー共演

間諜 윌크다ー사부일監督。콘랏드•파이트、뷔뷔안레이共演

月光의曲 로다ー루ー멘데스監督。얀케프라스키主演 자ー루ー스•파ー레루、바ー바라•크리ー닌助演

다시戰爭으로 테임、우엘링監督。레스리•방크스、포무ー라•톰손、세바스챤•쇼오共演

靑春의抗議 마리온•게링監督。에드와ー드•G•로빈손主演

近代脫線娘 시드니ー•란필드監督。바바라•스탠윅、로버ー트•양共演

방데엽는紳士 작크•프에ー데監督。마리ー•베르덴리히、로버ー트•도ー낫트主演

모단•타임스 챠ー리•채프린 自作自演監督及編曲。포ー렛트•고다ー드助演

스타ー誕生 윌리암•웰만監督。자네트•게이나ー、프레데릭•마치、아돌프•멘쥬共演

男子를못드는女子 존•부라이스톤監督。윌리암•호프킨스、젤•마크리ー共演

유니버ー살

妻는 라이비스톤부터 에드와ー드•바스톤監督。도리스•노란、존•호ー루스、다라•비렐主演

깽의罠 루스•포오스다ー、미로폰•카ー루스監督。세사•로메로、다라、비레루•블라ー비지오主演

戰慄의航空路 미로폰•갈스監督。윌리암•가ー간、진자•로자ー스主演

우리들의花園 알프레드•L•워ー카ー監督。사리ー아이라스、제스•모단主演

窮地 데베드•하와ー드監督。존•웨인、진자•모저스主演

사랑스러운女子 엘든•카ー른스監督。윌리암•가ー간、버니ー반스主演

살어라 하롤드•양監督。존•하와ー드、난•그레이主演

울프라고부르지안는사나히 게이수•포오스다ー監督。스톤•바ー바라、리ー도主演

오ー캐스트라의少女 헨리ー•고스다ー監督。데이아나•다빈主演 아돌프•만주助演 레오폴드•스토코프스키特別主演

名作의續篇『夕陽特急』

自十一月二日 明治座서上映

일직이『그림자엄는사나희』에서 新鮮、明朗한 印象을바든 팬들은 이제 그續篇이라고할만한 映畵가『夕陽特急』인데 明朗하고 스마ー트하든기는 前篇에 못지안하 포웰과 로이夫妻의 情探의 遊戲를點出해서 一種의『갱』探偵映畵인데 原作은 다쉬엘•하멧트 脚色은 프란세스•굿드리치 監督은W•S•반다이크 主演은윌리암•포웰、마나•로이兩人으로 오는十一月二日부터 市內 明治座에서 上映한다。

(사진은 同映畵의한場面)

世界各國의 映畵取締一覽表 (四)

丁抹

一、主管 司法省

二、檢閱 1、國內上映映畵…檢閱을施行함(有料) 2、輸出映畵…檢閱制度업슴

三、備考 映畵檢閱에關해서 徵收한돈은 檢閱事務에 必要한 額을 控除한뒤에 補助金의形式으로서 諸種의 映畵關係事業에使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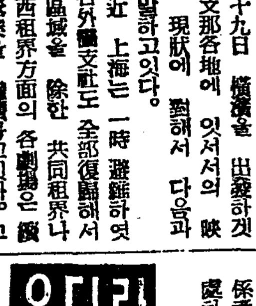
"支那의映畵界 今後는樂觀이다"

와ー너ー會社極東支配人談

上海를 中心으로 支那各地를 視察中이든 와ー너ー映畵會社極東支配人 하롤드•에스•단氏는 二十三日 東京支社로 歸社하엿다 氏는 米國本社에 極東情勢의報告와 및 今後의 事務打合때문에 二十九日 橫濱을 出發하겟는데 支那各地에 잇서서의 映畵界의 現狀에 對해서 다음과가티 말하고잇다。

最近 上海는 一時 避難하엿든 各外國支社도 全部復歸해서 交戰區域을 除한 共同租界나 佛蘭西租界方面의 各劇場은 續續營業을 繼續하고잇다。그래서 인제는 그影響을 거의밧지안코잇다。그러나 交戰區域의 興行街는 勿論 全滅이다 게다가 地方으로의 輸送이 全部杜絕되엿스므로 營業이 잘되지아니하나 最近 上海에서는 日本人의 入國이 許可되여서 ... 『王子와乞人』 등은 近日公開될『綠色의牧場』인데 『綠色의牧場』은 香港에서는 英國人이 만흔때문에 全然 失敗하엿다。支那에잇서서의 映畵界의 將來에 對해서는 事變만 落着되면 以前보담도 훨신 良好하리라고 樂觀하고 잇는만큼 此際에 關係者는 適當한 方法으로 善處하기를바란다

라디오



三十日 (土曜)

◇午後六時 (平)라듸오名勝巡禮 平壤篇(一) 柳京어린이會 指導金永善 伴奏金潤善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人間의一生』中央高普 李根霞

◇同七時四〇分 講演 敎育勅語渙發日을當하야 第二高普訓導 ○澤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雪의進軍』 明新合唱團 指導玄濟明

◇同八時二五分 懸賞라듸오小說 (當選作品)亞細亞의黎明 一金斗基作 朗讀沈影 效果李載玄

◇同九時 歌詞 一、想思加曲 二、黃鷄詞 金花香 崔鳳仙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輕音樂

◇同一時一〇分 (東)時局大會

◇同六時 (大)童話

◇同六時二五分 (大)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時局講座

◇同八時五〇分 (東)라듸오드라마

三十一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新民謠 一、사철타령 二、봄노리타령 三、경개사 四、양산도 五、청춘가 六、시골리 張一朶紅 和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同一時一五分 圖書館週間講演『讀書합시다』

◇同六時 偉人이야기『十一月에난偉人』 宋今璇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金道泰

◇同六時三〇分 國際情報 沈天風

◇同七時四〇分 圖書館週間講演『珍籍奇書이야기』 城大圖書館 金晋燮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 戰勝의歌 景明合唱團 指導朴景嬉

◇同八時二五分 一、報恩 二、새打鈴 三、城主푸리 四、麗夫歌 金傑守 吳翡翠 玄琴申快童 大笒朴鍾基

◇同九時 古譚『忠僕』 金溫雲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하ー모니카

◇同六時 (東)라듸오빠라에듸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同

◇同八時 (東)和洋合奏

◇同八時二五分 (東)落語

◇同八時五〇分 (大)支那事變歌

一日 (月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굴깍두기』

◇午後〇時五分 (東)하ー모니카合奏 福島하ー모니카앙상불

◇同一時一五分 圖書館週間講演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 라듸오旅行『公州에서』 DK어린이씨ー클 金獸照

◇同七時三五分 音樂 李鍾相 ... 中에서 上舵、잔도도리、下舵 念佛打鈴、軍樂、界面도도리、兩淸、西面도도리 玄琴李(?)植 伽倻琴李秉換 笛(?)金(?)鉉 短簫(?)成 細笛(?)九

◇同八時 라듸오코메듸 술먹은 무성깃할 解說及指揮沈影 效果洪一山 白虹會 配役 崔榮秀 李軒 李明寶 張三圭 李載玄 尹一淳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 朴小香 鼓手韓成俊

◇同九時 피아노獨奏 (레코ー드) 베ー토ー벤作曲 소나타C短調 作品百十一 第一樂章 마에스토ー소ー(알레그로•콘•브리오)•에•아파소나ー타 第二樂章 아리엣타(아다지오•몰토•심플리체에•칸타빌레) 에른페드리

第一放送

◇午後一時 (東)二絃琴

◇同六時 滿洲音樂

◇同七時三〇分 (井)聯隊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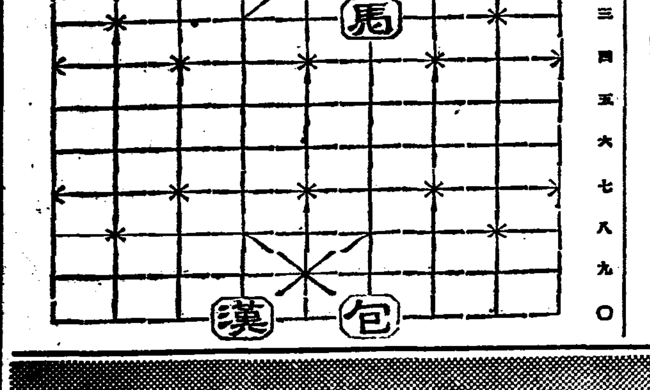
◇同七時四五分 (大)뉴ー스캇취

◇同八時一五分 (東)國民歌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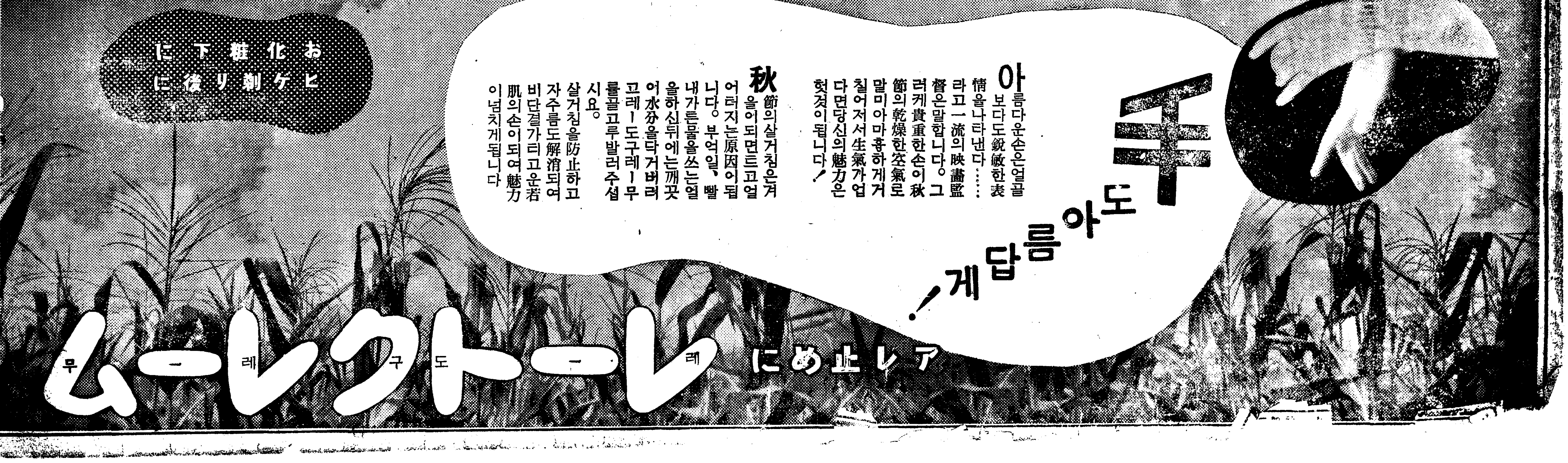
◇同八時三〇分 (東)尺八

◇同八時四五分 (大)浪花節

◇博譜大集 24 【昨題解答】



(博譜係)



中部版

上海戰勝祝賀 伊川郡民總動員

【伊川】상해전선에서 연전연승에 매진계속의 결과는 마침내 황군의개선을 보게되어 현재상해천지에는 지나군의 총퇴각을 보게된바 이를축하하기위하야 강원도이천군 또 이십구일 낮에는 전승축하 기행렬을하고 밤에는 제등행렬을 하기로되어 군내는 전승의 환희에 기세를 올리어 후의 국민적정성을 다하야 축하의뜻을 표하엿다고한다

鮮産品使用奬勵와 軍需工業發達助成

技術者養成機關設置가 急務

京畿道"産調"工業部會議內容

경기도 산업조사위원회 제이차 공업부회에서는 지난이십구일 오후한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 도청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전(實田)상공회의소회두가 좌장이되여 목군수로부터 정원(井原)참모도 참가하야 전의원이출석, 신중협의를 거듭한결과는다음과가리 공업조선의 장래에중대한 암시(暗示)를주게되는 항목을결정하엿다

一、現在의 朝鮮特히 京仁附近으로서는 技術方面으로나 原料關係로보아서나 重工業發展을期待하기에는 至難한바잇다 그發展促進에는 먼저 官廳側이 鮮産品使用의 方針을 確立하여 그需要를 企業化하는것이 必要한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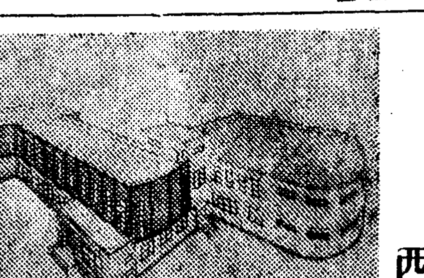
二、今回事變의 經驗에 鑑하야 將來戰의 豫想이 可能한半島에 大軍需工業을 發達시키는것은 必然的으로要求된다 또 大陸에 活動하는 軍의食糧은 將來 半島産業으로써 이에充用케할必要가 잇다 위선 小麥「히마신」油의 不足을充足케하는것은 軍部의 要求하는바이다 京畿道로서는 技術家의 養成機關을 設하는것이 先決問題임으로 工業學校 工業指導所가튼것도 速히 設置할必要가잇다

船腹不足、入荷杜絶 貿易界에 大異狀

仁川商議對策에 腐心

【仁川】선복(船腹)부족으로 인하야 인천으로부터 이출되는해안 각항으로부터 이출되는배미에 가장큰지장을일으키고 잇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영향은 출하에만미치지안코 입하에까지 파급하야 그자세한것을 조사한바에의하면 동경(東京) 횡빈(橫濱) 명고옥(名古屋)등지로 부터 선편으로수송한 화물은 출하후 일개월내지이개월까지에도 착되지아니하야 무역계에 가장 큰타격을 주고잇을뿐아니라 이에따라 물화부족으로인하야 도매상은 배급부족으로 큰영향을 밧고잇다한다

西部京城發展따라 西大門署廳舍新築



시내서대문서(西大門署)의 청사는 대정십이년에 건축한것으로 그당시관내의 인구가오만이엿고 직원이백명이엇든것이 그후 서부경성의 발전에따라 현재에는 관내인구가 십오만명이나되고 서원이 일백칠십명에 달하엿는데 청사만은 의연 옛날그대로 로후한것이어서 이번우근 그동안 당국에 그인가를신청중이던바 이십삼일 드듸여이것이 인가되여 총공비 이십만원으로 올마치고 공사를시작하게되엿다 신축될청사는 건평사백평의 삼층 철근「콩크리-트」건물로서 세면소

渼洞公普新築 三十日上樑式

지난오월부터 기공한 미동(渼洞)공립보통학교증축공사는 순서대로 진행되야 삼십일오후한시에 상량식(上樑式)을 거행하기로되엿다 철근콩크리트이층으로 삼층이며 공사비는 사만이천사백원이고 교실은 열두개이라한다 그리고 준공거는 오는십일월삼십일로예정하엿다한다

鐵道工事進捗따라 木手에도好景氣

春川에는木手飢饉

【春川】춘천(春川)은 일개의산읍으로 이러타는 생산기구조차 업스나 강원도(江原道)행정의중심지로 겨우그면목을 유지하여 오든터인데 금번 숙망중이든경춘철도(京春鐵道)의 실현을보게되자 각게에 활기를 띄게되고잇스며 철도공사 착수로인하야 토목게(土木界)에 활금시대를 일우고잇는바 현재춘천일대에는 목수(木手)들이 전부철도공사장으로 뽑히여가서 집을수리하든가 흠은 조곰아집을 지으려든가하여도 목수가업서 대곤난을 바드며 종전에 예상조차하지못하든 기현상을낫타내이고잇슴으로 자연히 목수(木手)의임금은 엄청나게올랏다고하며 일반소건축가(小建築家)들은 머리를알코잇다고한다

李王職에서도 葛山溫泉視察

【伊川】강원도이천군방장면(伊川郡方丈面)갈산온천(葛山溫泉)에대한것은 어미보지상에 루루히 보도한바어니와 거금사백오십여년전 리조세종대왕께서 발견하신 명사적 유서가잇는 온천이나 다만교통이 불편하야 널리 알려지지못하야 심히유감으로 녀겨오는곳인데 함유성분과위치 수량 온도등으로보아서 매우 조흔곳이라함은 금번 동경제국대학 다전조교수(多田助教授)가 실지시찰의결과 증명하고 간것이데 춘추 사백오십여년간 홀로 백자치를 보존하고잇든 갈산온천 감로사(甘露寺)에는 유독히 세조혜장대왕(世祖惠莊大王)의 위패(位牌)를모시고 지금까지 나려오든바 금번리왕직례식과(李王職禮式課)에서 지난 [illegible]

十年勤續한四敎員 今日、表彰式盛大

市內中東學校의慶事

시내수송동 중동학교(中東學校)에서는 십년근속한 류정렬(柳定烈) 최우동(崔宇東) 사공환(司空桓) 송좌헌(宋佐憲)씨등 네선생의 표창식을 삼십일오전열시 동교강당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다 (사진 우로부터 류정렬씨 최우동씨 사공환씨 송좌헌씨)

新編入된仁川府域에 택시料引下計畫

仁川保安係에서

【仁川】인천부내는 경성등지의 도로와다소 틀리어심하고 또는 "베프멘트"가완전히 되지못하야 자동차에부속품등이 단시일에 파손되는영향이 잇서당업자들은 "택시"요금이할이상하야 달나는 진정을하엿다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그간인천서보안계에서 실지조사한바에 의하면 당업자들의 진정이 일리가잇는것이나 시절이시절이라 급작히인상키는 어려울모양이라하며 도리혀 인천부신편입지 주안(朱安)송도(松島)가튼곳은 경인사업도로와 판단도로의 관계로 노면(路面)이가장 평탄함으로 종래의 요금을 이할내지오할까지 인하케하고자 보안게에서조사중이라한다

激增한小口無盡의 回收成績은極不良

不得已强制徵收에만汲汲하는慘狀

極度로梗塞된開城金融界

【開城】지나사변발발이후 일반경제게의 극도한위축은 더욱이부내일반 중소상공업자들의자금융통에 현심한곤난을 주고잇다 그실례의하나로 금년개성무진계(無盡界)의 현상을조사해본바에의하면 소위소구무진(小口無盡)리용자가 격증하나 취인관계상대부분이 거절당하는편이며 따라 무진회사에 입이대차된미수금만 보아도 작년금월부터금월까지 즉사개월 동안에대한미수금이 일만칠천팔백삼십이원이든것이 금년동기에 이것을비해보니까 작년이배에 해당한 만구천사백여십구원이란 거액이체된 현상이라하니 얼마나개성 경제게가 금융핍박에 빠저잇는데 직면하야잇다함을 알수잇고 게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지불명령장을발부하야 이에응치안는다면 강제집행 연체리자(延滯利子)청구등의 수단을써서라도 징수하고잇는편이라한다

市邊의未收도 五十萬圓巨額

[illegible] 개성시가지 개성금융생으로부 질업게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잇다함은 미수금액의 수시자가 증대하는바이어니와 이와한가지 개성지방의 특수한 금융이라고 볼수잇는 소위시변(市邊)이란것도 지난삼월상반기에청산치못한 확실한 숫자의 금액만이 오십만원에 달한다한다

一六五青年團糾合 江原道聯盟結成

團員總數一萬餘名

【春川】년래의 재해로 인하야 피폐된 강원도(江原道)농촌의농민들은 조흘러드는생활고(生活苦)로인하야 흑은 풍파리군으로 공사장을 차저가고 흑은이민열차에 몸을싣고 남부녀대하야 려로 불편하는형편인데 오를지산을 허무러저가는 농촌을 힘어게붓들고 명일의 강원도(江原道)를 위하야 굿세게나아가는 젊은이들의모둠인 청년단(青年團)은 그존재야말로 참으로 위대한것이며 현재전도내에 청년단수가실로 일백육십오 분단(分團)이사백팔십삼구 한게를백오십사개소에 단원(團員)은 일만팔천팔백이십일명으로 각군(各郡)에는 군련맹(郡聯盟)이잇는데 금번에통제와 활동을 강화하기위하야 오는십일월제일일 즉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제일일을복하여 도련맹(道聯盟)을 조직하게되엿는데 청년단수와 단원을 군별로보면다음과갓다한다

	青年團數	團員數	分團數	團員數
春川	八	四四五	二七	三三0
麟蹄	六	三六0	五	四四
楊口	八	三六八	一0	二六一
淮陽	六	二00	二	三六
通川	一0	三四0	一三	四四五
高城	七	三三三	一三	三三五
襄陽	八	三四三	二九	三二七
江陵	一0	四六四	二四	六九六
三陟	九	一、0六九	五0	一、一四九
蔚珍	八	九三三	五九	九二三
旌善	五	二三五	三	二二一
平昌	六	二四一	三	四四
寧越	八	二六0	四	二七六
原州	一0	七一三	五五	一、一八七
橫城	八	二三三	四六	三五五
洪川	九	三五五	三	三二六
華川	五	三五五	三	三九九
金化	一0	三二四	三三	三九二
鐵原	九	四二五	一五	二0四
平康	六	二六六	二四	四四一
伊川	五	四六八	四一	五二二
計	一六五	八、八0七	四六九	九、九八四

農土를買與하는 泉岸里의大豆稧

【伊川】농민의 생활향상은 즉국가의 발전향상이요 진전인바 현재조선농민은 극도의 생활난에서 허덕거리고잇서 심으라야 심을 토지가업서 농사를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큰공헌이 될만한 리적으로 소작농창청의 유일한 모범적 게(契)가잇다 이천군이천면천안리(伊川面泉岸里)로 재령(盧在臨)씨는 동리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인도코자 여러가지로 생각을거듭한결과 지금으로부터 칠년전에 동리사람 사십명이 대두게(大豆契)를 조직하야 매인당 매년대두 한말식모아 대두판매대금으로 토지를구입하야 제일가난한 게원에게주어 농사를지게하야 생활을윤택케하야주기로 시작한것이 지금에 이르렀으며 존립기간(存立期間)은 삼십삼년으로 금후이십삼년이면 사십호의 농민들은 전부 자작농이되야 농토가업서 농사를 할수업다는 불행한 현상을 버서나게될것이라고 일반의 기대가 크다는바 조선농촌에잇서 실로 열대 경종이 되리라고한다

嚴冬압두고 防火宣傳

江原道保安課서

【春川】강원도(江原道)에서는 년전의 자작파주의로 인하야 안목항(安木港)대화(大火)가 잇슨후는 이러타는 화재가 업섯스나 작년중거둔보면 전도의 화재발생건수가 이백오십일건에 손해가 [illegible] 이라는데 도보안과(保安課)에서는 추위를앞두고 방화선전운동에 [illegible] 잇스며 "불조심"이라는 포스타를 [illegible] 전도에 배부할터이라하고 『포스타』는 제작중이라고하는데 여하간 각가정을 비롯하야 불조심을 서로함힐필요가잇다고한다

花冠 【89】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사랑은 할것, 그러나…九

『사실은 동옥의 분별 께 뒤로 고민이 많았다 고백합니다……』

인철이가 분명히 불만을 하였는 이다. 동옥은 그소리를 이충수가 업다.

『왜 고민하기만하고 고만두려는 것인가? 싸워 이런 대적에 어떤것인가? 고민이 엇든 그에게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줄 필요가 잇지 안흔가? 새로운로 나든것을 성취한다 하엿다! 내가 그에게 용기를 주면…』

그러나 어느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보면 아모래도 지나친 정렬가텃다.

『조조하지 말자』

하고 다시 공부에만 착실하면서 학교에 다니엿다. 거의 다시 한주일이 지나는 동안 어상하게도 인봉이가 한번도 보히지 안는다. 그반 아이들에게 무러보니

『벌서 사날재 결석이야요』

한다. 동옥은 궁금해 견딜수가 업엇다. 인철에게도 인철에게 귀려니와 인봉에게도 정이 드럿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업는 외로운 오누이의 살림 그들에게 무슨 변고가 엇는것은 (詰)의 두절과가티 동옥의 가슴을 찌르는다. 동옥은 여날로 책보를 끼고 삼청동으로 올라갓다. 대문간에서 부를것도업시 자박자박 안으로 드러가려니까 안방미닫이가 바삿이 열리더니 그로부터 언뜻 여자 내왓다.

여러날 벗짓도 못한듯 먼지 미다지는 어내 닷치고 오빠의 기가 하나도 업다. 까칠 일은 간 뾰-얀 머리에 얼굴은 먼저 나온다.

『왜? 그간 어디 아펏서?』

『…………』

인봉은 고개만 흔든다.

『그럼?』

『오빠가 좀 아프세서……』

『오빠께서? 어데? 대단하신가?』

『아니 다 나섯서 재금은……』

하는데 미다지가 다시 열린다 인철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듯 어웅해진 눈으로 내어다 보는것이다.

『그새 편찬흐섯다구요?』

동옥은 미다지 아플로 갓다

『네, 좀……』

이러잔은 목소리와는 달리 불지 될듯한 시선이다. 동옥은 얼른 얼굴을 숙여버렸다.

『드러가요 언니? 추운데』

동옥은 인봉이가 구두 끈을 끌러주는대로 순순이로 드러왓다.

『좀 나신가요?』

『네 몸살이던가봅니다 오늘은 일어날려면 일어나겟세요』

『언니? 학교 아무일 업수?』

『그런』

『나 담임선생님께 못갓단 편지두 안해서……』

『왜그래서? 엽서루라두 알려 지 안쿠?』

인봉은 대답이 업시 숨혀어 오빠의 눈치를 본다. 동옥도 언청을 보앗다.

『누의시죠』

『아니야요 괜찬습니다……나야 중헌병아니구 인봉이가 학교에 가기루 어떠켓습니까면』

『…………』

동옥이나 인봉이나 다 인철의 말이 계속되기만 처다보는 수밖게 업다

『아프로 개가 공불 계속할수 잇슬지 의문이야요』

『…………』

두 처녀는 또 『왜요』 하기보다도 역시 인철의 설명을 기다리는수박게 업다 그러나 인철이도 더 말을 계속하지 안는다 한참이나 무거운 침묵이 지나간다 무엇을 생각햇슴인지 인봉의눈엔 다시 눈물이 쭈르르 흘러나린다

『못나니! 울긴 왜?』

하고 인철은 억지로 웃음까지 지어 보히나 그의 웃음도 못하지안케 슬퍼 보히다

동옥은 용기를 내여

『왜 무슨 사정인데요? 갑재기?』

하고 물엇다

『갑재긴 아닙니다……아직 연봉이게두 말허지 안혓습니다만 오늘 전 동옥씨 오섯을 맛낫습니다 절 위해 조흔 의견을 말슴해주십시요』

『…………』

『제가 구대에 재회중 일테니다』

하고도 한참이나 망서리다가 말을 계속한다.

『한번은 여름방학에 나오니까 웬 기생련가 나는 젊은 여자가 집에 홀쎄와 잇서요 어머닌 날더러 인사하라구해서 더니 이 뒷해에 사시는데 인봉일 끔찍히 귀해허구 늘와서 말벗이 돼주시는 고마운 분이라구 그리시더군요……』

인봉이도 눈물을 걷고 눈이 둥그래진다.

戰時消費統制下에 各官廳學校冬服은 當店에게

高級既成服

附屬品과 仕立은 別註服과同함

(同業者購入(仕入)은 當店에限함)

但三錢切手封入申込ヘ第先地見本價格表送

高級洋服 製造販賣

東京市神田區岩本町七番地二〇

[illegible]田商店

振替東京一三三六九四番

冬メリヤス

在庫殘品廉價大賣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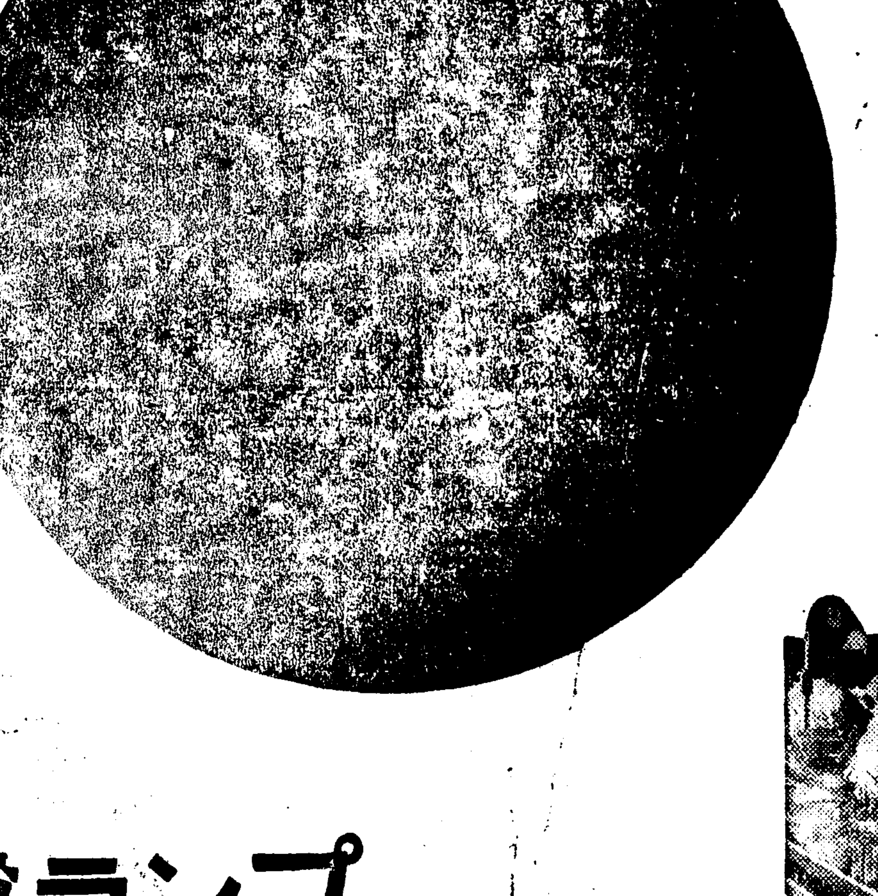
東亞メリヤス製造所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三丁目 振替大阪六、二三八〇番

人氣의絶頂 朝光 十一月號

趣味와 實益잇는 記事를 滿載 [illegible]

朝鮮日報社出版部



銃後の眼を護れ!

(총후의 눈을 직혀라)

ヨイアカリ メヲマモル

(第一學年 一等當選作品)

良い照明 眼の護り

(第六學年 一等當選作品)

マツダランプ

(마쓰다람프)

第一劇場

主演 진·하-로- 케리-·그란트

松竹大船超特作 原作 國木田獨步

仰げば尊し

東日大每新聞 [illegible]

優美館

北支事變뉴-스

旗本八萬騎

一番のちやつかり娘

暗黑街의鐵腕兒

東洋劇場

『結婚休業』

『第二의出發』

『렉사쓰決死隊』

支那事變特報

女人의都 (女だけの都)

檜持街道

團成社

十一月一日부터 [illegible] Gメン의 [illegible]

專賣事業一大轉換 對外國輸出을目標

從來對內專賣益金主義一擲 問題는耕地面積擴充

戰時體制下에있서 內外地를通한 專賣事業의 大轉換을 大藏省方面에서 研究中으로서 이미 朝鮮總督府專賣局에서는 그內意를 體하야 北支와 ○○○를 大量輸出키로된것은 既報와같거니와 從來는 對內的으로 專賣事業이라는것은 煙草專賣益金을主로한것으로 國民에게 煙草를어 問題로 稅金을 받던것이인데 大藏省의 意向은「內外地의 專賣 事業을 通하야 煙草 專賣益金은 價格問題 低落에 따어 얼마 되는것이 아니오 그만한程度의 財政收入은 다른 財源方法으로 國民으로부터 얻마든지 ○○○을것이니 그보다는 專賣事業을 轉換시키어 國産煙草를 널이 海外諸國에 輸出하야 國際收支의 均衡에 資함을 第一要로 할것이다」라하야 具體的으로 研究를 進코있는데 이에對하야 朝鮮總督府 專賣局에서는 如左히말한다

煙草 專賣를 對外輸出 目標로 한다드래도 그러라고 國內需要를 減少시킬수 없는 터이니 生産擴充이 先決問題이다 現在朝鮮에서는 葉煙草를 自給치못하고 外國으로부터 輸入코있는터이니 全面的으로 葉煙草栽培面積을擴張치안코서는 煙草의大量生産이 不可能할것이다 그러데朝鮮의實情은 耕地가 不足하야 栽培獎勵가 棉花其他等 各技術所管事務에따어 相衝되므로 그限界를 確實히定할必要가있다云云

[illegible]資金은 遷延하야 하할方針임으로 還元도안되고 또 經營도안되어 年末金融도 緊迫이다 長期資金은 아주暫時未定이나 不遠明朗케될것이다

下旬對外爲替 出超三千百萬圓

【東京電話商通】 大藏省發表=十月下旬對外貿易爲替는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一一九、八五九
輸入	八八、八三七
合計	二〇八、六九六
出超	三一、〇二二
一月以降入超累計	六八八、三五〇

肥料의生産費

委員會서 政府發表

石窒—六十二圓 硫安—六十六圓 硫安은五割以上利益

【東京】 政府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一時半 首相官邸에서重要肥料業統制委員會를 開催하고 通過決定한 九月부터 十二月에至하는石灰窒素의 公定價格과 明年一月부터七月에至한 硫安公定價格及 硫安販賣會社設立에 至하기까지의 經過內容을 報告하고 諒解를要求하바이엇는데 石黑委員으로부터石灰窒素、硫安生産費와適設成立한 全國肥料商組合聯合會의內容을 물은後에 「肥料業委員은 政府의絕對的信任을 受하야 就任한者이니 價格變更에는 委員會를 開하야 그意見을 求하라」고 希望意見에藉口하고 猛烈히質問하야 一時는 緊張한空氣를 띠엇는데 이것은 今回價格決定에對한 農林方面의 不滿을代表하는것으로 그質問에 注目되엇다 政府는 石黑委員의 生産費에對한 質問에對하야 石灰窒素一噸에 六十二圓, 硫安은一噸六十六圓乃至七圓 (모다利潤償却費包含치안코) 直接生産費인 旨를 答하엿다 而하 硫安一噸生産費는 六十六圓인데 京城市中現在硫安市價는 千貫(叺三圓八十五錢)이다 一噸은二百七十貫가량인으로 一噸市價는 百三圓九十五錢이되어 三十六圓九十五錢 即五割의利益이되는세음이다

肥料共販會社 來上旬創立總會

◇…岡崎窒販專務談

岡崎窒素販賣會社 專務는大阪으로부터 二十九日 歸京하엿는데 如左히 말하엿다 日本內地의 臨時肥料統制法에依한 共販會社設立은 大綱이 決定되어 二十八日 代理店決定과 新會社首腦部의 人選에 關한最後的協議를 了하엿음으로 來月上旬 創立總會를 開催하게될것이다 同社의 新陣容은 會長에 織田前農林次官 社長에 森邊耐氏가 內定되엇는데 專務、常務各一名이 未定이나 前日本人造肥料의 苦米地氏가 專務에 有力視되고잇다

日産傘下會社 從來대로經營

【東京電話同盟】 日産의 滿洲發展的 移轉에 伴하야 現在日産傘下의日本鑛業 日立製作所 日本化學 水産等을主로한 各子會社의 將來는 念慮되엇스나 日産으로서는 現行대로 何等變更이없이經營을繼續할 方針이라한다

熟練工養成 五年間二千名

技術者와 熟練工養成의 緊急은內外地를 不問하고現下 焦眉의急인데 總督府에서는 目下朝鮮工作會社와 京電에委囑養成中인機械工과 電氣工 各百名式인것을 다시來年度부터 擴大하야恒久的方策을 樹立키로 되엇는데 新事業計劃은 十三年度부터 十七年度까지의 五個年計劃으로하고 此期間二千人의 敎育을行하자는것으로 그大要는如左하다 ▲機械工=年二百五十人▲五個年間總計一千二百五十人 ▲電氣工=年百五十人▲五個年總計七百五十人

短期資金市場 資金操作奏効

野田殖銀理事談

渡東中인 野田殖銀理事는 卅九日 午後一時卅五分着歸任하엿는데 如左히 말하엿다 有賀頭取의 辭任을 東京에서도 애석해하고있다 新行員經衛도 좋다 金融界는 短期資金이 大藏省日銀興銀의 三者의緊密한 連絡으로市場操作을 行하고 預金部資金의 放出日銀의 積極的貸出或은公債買入等에 依하야 非常히順調인 成績을擧코잇다 今後도이 市場操作이 繼續될것인데 要컨[illegible]

綿織物市價抑制

最高標準價格을設定

綿業統制細目根本方針決定

【東京】商工省에서는 既報와가티 綿業委員會의議를經하야 綿業調整要綱을 立案하고 棉花輸入許可數量、棉花及綿絲의 最高標準價格等을 決定하얏는데 綿業統制를 全面的으로 確立키爲하야서는 (一)原棉買付方法(二)統制手數料의 徵收와 輸出補助金交付 (三)綿織物의 市價抑制等 重要問題에對하야 細目을決定할必要가 엇슴으로 今後此等諸問題를 逐次綿業委員會의議題에供하야 調査研究하고 具體案을 作成키로되얏는바 商工當局으로서는

一、原棉買付方法은 買付數量의 大割程度를 各輸入業者에게 既得權으로서 配定하고 殘餘四割程度에 對하야 自由買付를 許容할것

二、統制手數料는 棉花輸入業者로부터 徵收하고 이것을積立하야 綿絲布輸出을確保、獎勵키爲하야서는 綿絲布輸出業者에게交付할것

三、綿織物의 市價抑制에 就하야서는 棉花及綿絲와 同樣으로 最高標準價格을 設定할것

等의 根本方針을 決定하얏는데 具體案은 綿業委員會의 意見과 民間當業者의 自治統制를基調로하야 決定할意向이라 한다

綿絲、棉花第二回

最高標準價格發表

【大阪電話商通】紡績聯合會及棉花同業會에서는 綿絲棉花의 最高價格을 如左히 發表하엿다

▲綿絲 金魚二十番手 一梱二百二十八圓 受渡月 昭和十三年一月及二月 基準 紐育定期十二月大引八仙一二 每一포인트變動에 一梱에對해 一錢이다

▲棉花 스트릭트·엇트링 入分七、스레드 一괴를五十一圓二十五錢 受渡月 昭和十三年一月及二月 基準 紐育定期十二月限 大引八仙一二 每五포인트變動마다 一괴를廿五錢이다

各會社總會

米倉 米倉會社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京電별딩四階會議室에서 第七回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一、營業報告決算承認件

二、第七期利益金分配件

三、取締役林茂樹氏辭任에對하야 補選件

四、前監査役 田淵勳氏前取締役 林茂樹氏에게 退職 慰勞金贈呈件

第一、第二項은 모다原案承認、第三項은 殖銀理事山口重政氏가 議長指名에依하야 選任第四項은 重役會一任으로하고 同十時五十分閉會하얏다

利益金處分案 ▲當期總益金一、八三九、三〇六 ▲總損金一、五九三、九七七 ▲當期純益金二四五、三二九 ▲前期繰越金一一、九七七 ▲計金二五七、三〇六

右處分은如左함 ▲法定積立金一六、五〇〇 ▲別途積立金四五、〇〇〇 ▲社員退職手當積立金一五、〇〇〇 ▲役員賞與金一八、〇〇〇 ▲普通配當金(年五分)一〇〇、〇〇〇 ▲特別配當金(年二分)四〇、〇〇〇 ▲後期繰越金二二、八〇六

南鮮合電 南鮮合同電氣會社에서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遞信事業會舘에서 合同後最初의株主總會開催、營業報告와 決算承認利益金處分件等 附議하야原案대로 可決한바 左記와가티株主配當은 一割可決이엇다

(單位圓) ▲當期純利益[illegible] ▲前期繰越金[illegible] ▲合計[illegible] ▲法定準備金[illegible] ▲退職給與積立[illegible] ▲役員賞與[illegible] ▲配當金(年一割)[illegible] ▲後期繰越[illegible]

窒販 窒素販賣會社에서는 三十日大阪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年一割配當利益處分案을 異議업시可決하얏다

北紙 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第五回定時總會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東拓會議室에서開催 足立副社長議長司會下에

一、昭和十二年上期營業報告書以下諸決算案承認과 利益金處分案議決件

二、定款中變更件 (吉州邑昇格에依한 本社位置變更件)

을 異議업시 可決한바 利益金處分案은 既報와가다

北鮮製紙操業好績

北鮮製紙의 本年上期는 工場設備의 整備가 完了되어 全期間操業에 入하얏는데 操業初의 헨드랩及輸送制限에依한 原木供給難이잇섯슴에도 不拘코 팔프製造가 一萬八百餘噸에 達하야 總收入三百九十四萬圓을 擧하고 百六萬一千圓의 支出을 除하고도 八十七萬八千圓의 利益이엇는데 經費中에는 約二十餘萬圓의 償却이 包含되어잇서 公表利率은 一割七分五厘이다 次期부터는 팔프滓의處理設備完成과 惠山線開通에依한 原木供給의圓滑化를보아 工場能率은 一層發揮될豫定이라한다

新舊財務局長談

水田新財務局長談

財務局長에 就任한 水田氏는 突然한일로 如左히말하엿다 明年度豫算編成을 앞두고 매우 重大한 時期에 [illegible] 林財務局長의 實績을 繼承하야 [illegible] 朝鮮財政의 根本的改革이 迫近 日本內地에서는 根本的改革이 斷行되어 朝鮮金融界에도 重大한 時期가 到來할줄안다

林前財務局長談

오랜官界生活을떠나서 殖銀頭取의 椅子에안게된 林繁藏氏는 如左히 所感을 말하얏다 大正三年春以來二十四年間官界生活을하고 最近은財務局長을 오래한것은歷代總督 總監의恩顧와多數先輩諸公의指導와 一般各位의同情에依한것으로 非常히感激하는바이다 [illegible] 官吏生活을떠남에 際하야 여러분의 從來의 厚情을 感謝하는 同時에 一層의 援助를 바란다

은 重責으로 [illegible] 拜命은 夢想도하지 안엇든일로 適任이라기보담 차라리 職務關係에 永年從事한것뿐이다 特히 一般金融界에 對해서는 돗고아는程度이어서 今後에는 크게努力할생각이다

殖銀關係도잇서 여러분의指導를期待하야 마지안는데 다만 總督府의 財政朝鮮金融에 精通하야 오래計劃指導하고잇든 林局長의 殖銀入은 同慶不已하는바이다

殖銀頭取更迭

三十日附로一日發令

殖銀頭取의 更迭에 伴한辭令은 三十日附로서 左와如히 一日發令될터이다

任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頭取 林繁藏

依願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頭取 有賀光豊

經濟寸鐵

◎朝鮮도內地에 追隨하야 暴利取締令을擴張

◎商人들 精神차리시오 무엇무엇이 取締令에 걸리나!

◎林財務局長의 殖銀頭取는 定式決定되엇다 朝鮮의 大藏大臣 貫祿을보아서도 當然?

◎남어지問題는 加藤殖銀總裁의 後任 果然南總督直系로 내세우게될가? 두고보아야할일

◎硫安은 五割의利益 이러고도 安社好事業

◎綿織物最高價格까지 設定하려고 綿絲價格가치 業者에게 利益이 될지

◎專賣事業大轉換 質的으로擴張 算價再引上이나 안될는지?

經濟界消息

○有賀、林兩氏送迎會 京城商議共同主催로 來五日午後四時부터 京城府民館에서 殖銀頭取를 辭任한 有賀光豊氏、林繁藏氏의 送別會를 開催한다는데 會費는 二圓이라고

○朝鮮皮革은 [illegible] 九月末[illegible] 分配[illegible] 八分으로 內定[illegible] 十一月四日 開催한다더라고

取引停止解除

(十月廿七日) ▲料理業京城府花洞町一二五番地의一號 宋文會

(十月二十八日)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一六番地의一六號 成元慶 ▲京城府黃金町[illegible]

今日財界 (三十日)

◆米 (單位十錢)	今日前場	先月前場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東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綿花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今日의市勢 (三十日)

株式 日産爆發 堅强

前場日産高 昨後場 反飛狀이된 市勢는 今朝의 外電高도加하고 또日産의 滿鐵과連繫說도傳하야 東京市場에서 滿洲에 進出한다고傳하야 東新、鐘新等 諸株도 一齊에 飛騰하야 日産은 一擧七十五圓丁上寄하엿스므로 當地에서도 東新九十錢高、鐘新一圓九十錢高、日産四圓八十錢高、日産新三圓九十錢高로 一齊反高寄付하엿는데 그後는 다시 月末受渡分에 買方의 利喰賣로 다시反落狀이 되어 東新은 百五十一圓八十錢 大引은 一圓二十錢高 鐘新은 二百三十七圓九十錢 日産은 七十四圓五十錢의 高價로 七十二圓八十錢의 低價로 結局은 各其大引하야 今月을 마치고 後場은 土曜日로 休會하엿다

日産活躍

日産、滿鐵이 握手

市勢는 今朝日産高騰되어 寄付는 一齊高警戒로 昨夕少軟狀을 보인 日産이 一氣五十六圓의 高値를 보엿는데 그原因은 無엇인가? 今朝東京서 들어온 情報에 依하면 日産은 滿鐵과 握手하야 日産을 滿洲에 移轉하야 直系會社로하는 日本內地에 두고 本社는 滿洲에 新京에 滿洲重工業株式會社를 設立키로 되엇다고한다 滿鐵은 滿鐵과 無順炭鑛을 經營하고 其他는 日産과 合併케되는데 資本金은 五億圓으로하야 滿洲서 牛數를 내고 日本內地서 내는데 日産에서 五千萬圓을 出資할것이라고한다 勿論 其餘外의 資金은 三井이나 三菱等의 財閥에서 引出할것이나 日産傘下의 鮎川氏를 中心으로 同會社가 日産系에 中心이되고 同會社를 設立하야 重工業이나 製鐵、採礦事業등에도 수출할것이 明白하야 將次 北支進出에도 有望하다고 看做되며 配當도 八分은 될것이라고 傳하야 日産이 暴騰에 暴騰을 거듭하엿다

東新의今後觀

今朝東新은 日産高에따러 上昇하엿스나 다시 高價는 賣崩되어 一圓二十錢을보이고 東京東新은 三圓二十錢을보이고 一圓五의低價에로 내렷는데 日産이有力材料로 登場하게되자 東新도 크게[illegible]

國債 戰況樂觀 少康

【東京電話同盟】金融의 平穩[illegible]

市場六感

㊑…오래간만에 日産의 暴騰을 보앗다! ▲日産高가 諸株活躍의 前提냐? 騰勢의 一段終局을 告하는것이냐? ▲이는 確斷키어려우나 東新에 事變前의 株價에 肉迫하엿스므로 多少警戒人氣가 되는것도 無理는아니오 戰局의 有利化로 前途는 樂觀이로되 ▲連日進騰만할수도업는것은 經濟界諸事情과 株式自體內의 對時局關係라 一朝에 一張一弛로보아 大市勢가 目前의 軟弱이 잇슬수는 업는일 ▲期待할수업서 押目買가 잇지못하나 ▲高價를 積極買하기도 亦難이니 暫時小拘主義로 나가며 全體의 動向을 注視할일 (金剛城)

㊡…今朝는 晴天으로 正米市場도 樂觀氣分에 濃厚하야 丸仁倂 三等二十九圓四十錢의 又復低落을 告하엿스나 淸算은 反高▲中限은 當限에 入하게 되엇스나 입호로 正米가 더떠러 저는지 當限이 올는지 何如間 同鞘化하여야 할것은 事實▲그런데 淸算은 依然伸惱狀態를 呈하다 그러나 阪地高를 추여 無視하지는 못할듯 (雪山)

米期 阪地高로 反撥

前場反撥 今朝는 晴天으로 阪地初相場은 三十一圓八十五錢인 入丁高로 仁川은 中限은 九圓〇一錢인 九丁高로 先限은 廿八圓九十九錢인亦九丁高로 寄付하엿다 寄付後 反高하엿다가 後場은 受渡準備로 休會이엇다

阪仁鞘漸擴大

阪仁의 開鞘는 一時二百六十丁內外로 縮少하엿든바이나 昨今에 入하야는 二百九十丁內外로 擴大되엇다 此原因의 所在는 日本內地는 時局의 關係로 秋事가 遲延되엿슴을 아니라 輸送力이 不足하야 內地의 賣物이 全허 杜絶되어 集散市場의 米價는 漸次 昂騰을 告하게되고 鮮內의 事情은 地方出廻는 輸送力의 恢復으로 如一히 旺盛하나 그러나 船腹의 不足으로日本內地의 移出이 不振하야 集散市場의 滯貨는 增加하게되어 實勢는 壓迫을 受하게되므로 朝鮮米는 自然自地의 壓迫을受하야 阪仁의 鞘가 二百九十丁까지 擴大한바이다 要하면 朝鮮米의 大量買上을 實施하든지 又는 輸送力이 圓滑되지안는 限에는 昨今과 如히 依然大擴鞘로 時日을 經하지 안혹가 한다

新甫發會豫想

來十一月一日에 發會될 新甫는 一月限은 昨年은 中先共히 二十七圓二十錢의 同鞘로 發會되엇스나 今年은 日本內地米第二回 豫想의 減收說이 多分 今日엇 뿐아니라 時局關係로 大量買上은 發表될것으로 觀測되어 今後의 米價는 豫期하는 關係上 적어도 一、二十丁上鞘로 發會되리라는 豫想說이 多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先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限	[illegible]	[illegible]

各地新甫上鞘豫想

▲大阪十丁上▲名古屋十丁上▲東京十丁上▲下關十丁上▲仁川無

正米 京仁低나 堅調

▲大邱五十丁上▲釜山五十丁上▲群山五十丁上

京城少弛 定期는 一齊上放이나 當限納會에 依한 受米의 市中流出念慮와 頭上回復에 依한 出廻增大豫想으로 唱價十錢低를 告하엿다 ㊂三等二九、六〇 四等二九、三〇 一等白米一二、一〇

仁川弱含 今日定期는 續騰이나 出廻緩和에 依한 正租의 入荷殺到와 依然한 日本內地의 賣行不振으로 商談이 不振하야 市場人氣도 不振하야 市價는 定期에 逆行하야 十錢低로 閑散商狀을 呈하엿다 穀良 三等二九六〇 四等二九四〇 銀坊主三等二九六〇 四等二九四〇 多摩錦 三等三〇〇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 四一二一〇 ⑬一二〇〇

釜山硬化 依然貨車不圓滑로 新規賣物이 全然업고 大阪不良으로 氣配十錢高를 唱하엿스나 取引은 當用側의 小口買로 閑散을 極하엿다 ㊂良三等三〇、七〇 四等三〇、五〇 一等白米一二、四七

大邱奔騰 必需側의 小口買散見으로 無活氣場面의 市場이나 今朝定期의 一齊上放으로 市價卅錢高로 奔騰을 演하엿다 ㊂穀良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三〇 一等白米一二、三五

群山保合 降雨의 되풀비더 依然 出廻僅少를示하엿스나 月末도 兼하야 日本內地의 買氣薄으로 大口實買가업서서 市價는 前價同樣으로 保合唱이다 ㊂三等二九、七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一二、六〇

木浦少高 一般은 月末待로 實買는 거의업스나 朝來期米의 上向商狀으로 唱價十錢高를 告하엿다 ㊂三等二九、九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一二、六五

株式

◆朝取短期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東京現株 | ◆朝取短期賣買高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大阪短期取組 | ◆短期手賣取組高 |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 益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 ◆大阪期米 | ◆大邱期米 |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 ◆大阪期米 | ◆木浦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一丁目 電話

京城物價 (三十日)

◆白米(斗、單位錢)	[illegible]
◆肥料(叺、單位錢)	[illegible]
◆紙物	[illegible]
◆燃料(屯、單位錢)	[illegible]
◆砂糖(單位錢)	[illegible]
◆海産物(單位錢)	[illegible]
◆洋粉	[illegible]
◆織物	[illegible]
◆木材(才、單位錢)	[illegible]
◆毛織(尺、單位錢)	[illegible]
◆人絹(尺、單位錢)	[illegible]
◆牛皮(斤、單位錢)	[illegible]

週間大勢

株式 待望의 上海陷落는 오랫동안 上海戰線의不振과 外交關係等惡條件으로 低調를보인 月餘의 陰鬱한保合을 一擲하고 一夜之間에 淸新한氣運을注入하야 人氣의中心인 東新을 低面으로 最初의 上放이되고 여어서 賣方退却에依한 踏物取得、一大騰貴을 展開하야 東新은 一躍에 百五十圓關門을 突破하야 百五十三圓九의戻高値를 보이고 資金調整法以後增資手控으로 無氣力相에 價格이 不知中 縮少된 鐘新도 二百四十圓을 回復하고 日産은 週末에 滿鐵과의握手를傳하야 依然 七十五圓臺로 奔騰하엿스며 [illegible] 諸株가 多少反撥狀을 보인 株界는 갓터어 明朗色되엿다

[illegible] 作에 對한疑問、外交關係에對한 警戒、憂慮等으로 依然 警戒人氣는 嚴重하야 東阪兩地에서도 新規買物보다는 賣方의 處分賣가 時時 注目을 끌엇다고 傳하는 狀態이어서 市勢는 一高一低의保合으로 週末軟調裡에 越週하엿는데 그러면 今後 市勢는 如何한 展開를 보일것인가하는것이 一般의注目의 焦點인데 目前의推移는 如何튼 東新의 先驅的暴騰으로 今後 大市勢展開의 序幕을 꾸민다고할수잇스니 [illegible]

期米 昨週 日本內地第二回 收穫豫想의 減收説에 刺戟되어 [illegible]

生絲 米國景氣의 反動狀에 가장 念慮되고 [illegible]

人絹 七十圓에 肉迫하는 人絹에도 [illegible]

綿絲 昨週末 綿業調整案이 發表되고 第一回綿絲棉花最高標準價格이 發表된것은 周知의事實인데 이價格統制는 十一月一日부터 施行되는데도 不拘코 [illegible]

海外經濟 (二十九日)

[illegible]	[illegible]

銀行券 (二十八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綿油粕·麥粉

◆阪神綿粕	[illegible]
◆阪神綿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場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illegible]

正租·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價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綿絲 · 棉花 · 生絲 · 人絹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